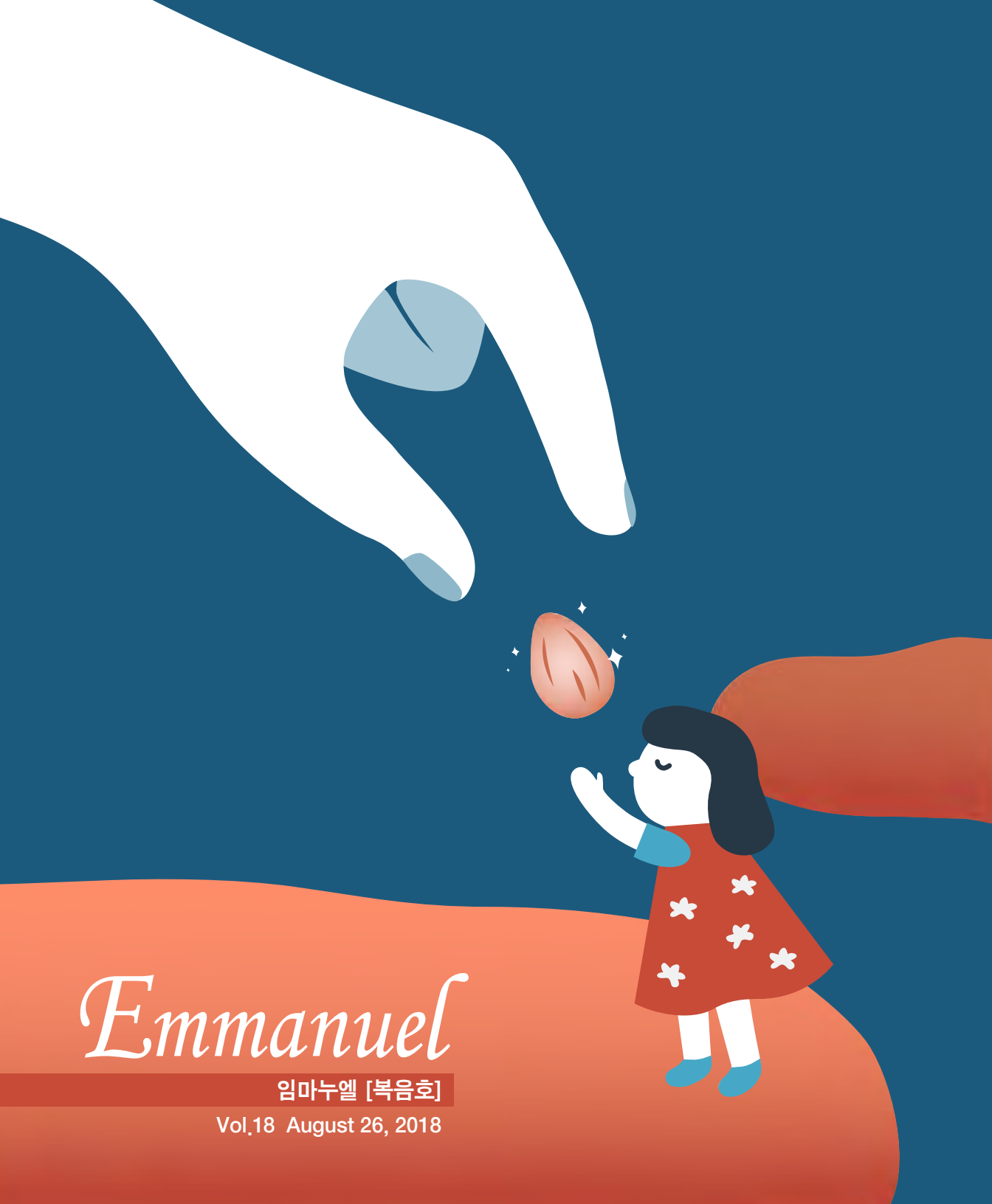




Emmanuel

임마누엘 [복음호]

Vol.18 August 26, 2018



말씀의 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개역개정)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ESV)

Contents

Vol.18 August 26, 2018

I. 복음호를 열며	02 04	말씀의 창 - 요한복음 3:16 담임목사 칼럼 - 복음이란 무엇인가?
II. 빛과 소금으로	06 08 10 12 14 18 20 22 24	믿음의 선진들 -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 선교지에서 온 편지 1 - 중국 선교지에서 온 편지 2 - 네팔 공예배 현장 - 영유아부 예배 현장 임마누엘 평원 소개 - 동부 평원 Building Bridges - 인도 불레싱교회와 함께 1 Building Bridges - 인도 불레싱교회와 함께 2 시대를 분별하라 1 - 가상현실교회 (기자의 눈) 시대를 분별하라 2 - 가상현실과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눈)
III. 설민한 물기	26 28 29 30 32 33 34 36	시가 있는 풍경 - 오늘이 내날이다 전도팀 - 전도는 Heart to heart다 함께라서 좋아요 - 발달 장애인과 대화할 때 임마누엘 레시피 - 메밀국수 장국 크리스천 명언 - 성 어거스틴 임마누엘 카툰 True Community, 공동체를 꿈꾼다 (2) 그림 이야기 -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
IV. 임마누엘 사람들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나의 기도문 천사도 흠모하겠네 부활의 증인 - 아버지의 구원으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복음의 씨 -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팔 / 베트남 커뮤니티 국내선교 간증 1 네팔 / 베트남 커뮤니티 국내선교 간증 2 멕시코 단기선교 간증 1 멕시코 단기선교 간증 2 오uckland 몽골 단기선교 간증 1 오uckland 몽골 단기선교 간증 2 코딩 캠프 섬김 간증 -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첫 발걸음 Youth 간증 - Joy 나의 노래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주님의 인도하심 푸른 목장 -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비취궐 목장 임마누엘 부서 소개 1. 국내선교부 2. 임마누엘 카페 [Well] 크리스천 영화방 - 리틀 포레스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Gospel)은 헬라어 ‘euangelion’을 번역한 것으로 ‘좋은 소식’(Good News)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나쁜 소식’(bad news)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의 일은 커녕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약 4:14).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한 죄인들이며, 그 죄의 댓가로 죽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약 1:15).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히 9:27).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bad news’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인 우리에게 이 ‘bad news’를 벗어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Good New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길을 여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16절은 복음을 매우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소식이 복음입니다(고전 15:1-4).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bad news’를 선포합니다(롬 3:9-10, 6:23).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죄수들은 모두 사형수들입니다. 이 감옥을 나가는 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세라세라(Que sera sera) 체념하며 살아야 할까요? 애써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죽음은 어떻게 하려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지금도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중환자실에서 중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처럼, 우리는 ‘Good News’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고아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수술실에서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실제 능력입니다(롬 1:16).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큰 업적도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거나 천하를 주고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요 14:6, 행 4:12).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글 | 손원배 담임목사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 (1862~1933)

박성춘은 1862년 서울 관자골(관훈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조선 사회의 하류 신분계층을 칠천반(七賤班)이라고 불렀는데, 포졸(편집자 주:포도청에 속한 군졸), 광대, 고리장(*편집자 주:나무껍질을 벗겨 장을 만드는 사람), 무당, 기생, 갓바치(*편집자 주: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백정 등 일곱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백정은 인구 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었다. 상투를 올리는 것도, 망건이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당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의 표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백정은 나이가 많아도 아이 취급을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백정 마을에서 백정의 딸과 결혼한 박성춘에게는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들만큼은 백정 처지를 면해 주고 싶어서 천주교 학교에 보냈지만,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곤당골 예수교 학당에 보냈다. 1892년에 입국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사무엘 무어(모삼열)가 1893년 6월 곤당골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안에 학당을 세우고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두 딸도 엘러스 선교사가 시작한 여학교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1894년 동학 혁명이 일어났고, 그해 7월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여기저기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시체가 쌓여가고 이로 인해 곳곳에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때 박성춘도 전염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곤당골교회 사무엘 무어 목사와 제중원 담당 의사 에비슨 선교사가 백정 마을을 찾아가 전염병을 치료하였다. 두 사람은 전염병에 걸린 박성춘이 완쾌될 때까지 계속 왕진하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에게 손을 대어 치료한,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일파만파 소문이 퍼졌고 이때 감동한 박성춘과 그의 온 가족이 곤당골교회에 출석하였고, 그는 1895년 초에 무어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당시 곤당골교회는 교인은 20여 명 정도였는데, 고종의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가 병을 치료하며 전도했기 때문에 정부 관리들이 많이 출석하는 양반 위주의 교회였다. 그런데 천민인 백정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양반 교인들은 박성춘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무어에게 압력을 가하며 교회 출석을 거부했다. 무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며 그들을 간곡하게 권면했지만, 결국 양반들은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모두 나가 따로 예배당을 세웠다.

천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곤당골교회를 떠난 양반들이 세운 교회인 홍문수골교회는 순수 양반 교회가 되었고, 곤당골교회는 백정과 상민들의 교회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박성춘은 자신과 같은 백정을 위해 애쓰는 무어 목사에게 크게 감동

하고 온 힘을 다해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람 대접받는 길이 열렸으니 교회로 나오라고 천민들을 설득하며 전도하여, 곤당골교회는 다시 교인이 20여 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반면 양반들이 세운 홍문수골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였다. 그러다 결국 분리한 지 3년 만인 1898년 두 교회가 다시 합쳐 승동교회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박성춘은 마침내 1911년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된 박성춘은 내각 총서인 유길준에게 “백정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백정도 갓과 망건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문의 탄원서를 보냈고, 마침내 그 요구가 관철되어 박성춘은 조선 500년 동안 신분의 차이로 쓰지 못하던 망건과 갓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되었다. 그가 신분을 뛰어넘어 갓을 쓰던 날, 너무 기뻐서 잠잘 때도 갓을 벗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1885~1940)은 1900년부터 세브란스 학교에서 박서양이란 이름으로 예비스에게 의학을 배웠다. 그는 제1회 졸업생으로 1908년 조선인 최초 서양의사가 되었고, 1917년 간도로 이주해 병원을 세우고 유일한 조선인 서양의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민족교육 기관인 숭실학교를 세워 청년교육에 헌신했으며 3.1운동 때 만주 지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국민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대한민국회 산하 군사령부의 유일한 군의로서 독립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침내 박서양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고, 2008년 광복절에 대한민국건국포장을 받았다.

하나님은 천민인 백정 출신 박성춘과 그의 가족에게 무어 선교사를 붙여 주시고 역사하셨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박성춘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반상의 차별을 타파하셨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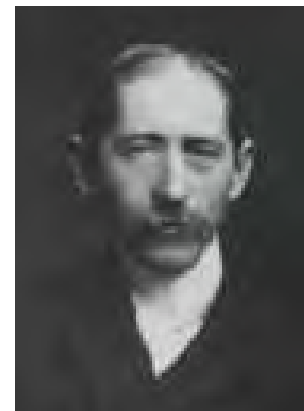
출처 | 감리교 뉴스 한국교회사

사진 출처 | Wikipedia, CBS 기독교방송, hcs.cha.go.kr

정리 및 편집 | 편집부



박서양



사무엘 무어 선교사



승동교회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조금 넘었네요! 한 달 정도 집을 비워서 내려앉은 먼지와 화초들을 정리하고 동네에서 자주 교제하는 분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나 식사 교제도 하고 미국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을 건네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멀리 떨어진 현지인 사역자들과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밀린 사역들을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실버 선교회로 나온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에 교회사로 나온 사람들은 본국에 귀국하면 교회들과 성도들이 김포공항에 나가 꽃다발을 전해주고 환영식도 해주고 나갈 때면 환송식도 해주었다고” 이 말을 전해 들으면서 ‘아!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해 들은 그때 그 시절이 저희에게도 왔네요~~. 저희 지역으로 오는 단기 사역팀과 함께 모국을 섬긴 지 벌써 햇수로 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마지막 나눔 시간에 저희의 올해 안식월 계획을 나눴는데 그때 저희들을 흔쾌히 미국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지도 못한 초대로 이번 에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운전도 못해서 거의 민폐(?) 수준인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매일매일 운전해주시고 식사로, 여행으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밤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선생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는 장애인 주일 설교와 그다음 주 손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섬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좀 더 섬기는 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를 겪으면서 매년 오시는 단기 사역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곤과 시차 적응도 뒤로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현지인을 섬기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한편으로는 팀들을 더 섬기지 못해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시차와 피곤함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꾸준한 임마누엘 단기 사역팀들의 섬김으로 이곳의 모국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들을 섬기는 자로서 보람도 느끼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또한 저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는 예능평원의 7명 목장, 선교 2보기도 모임, 7명 단기 사역팀과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 교역자님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2018년 5월 8일

7모 조선생과 강선생 올림



2018 네팔 선교 현황 및 방향

위치: 중국(티벳)과 인도 사이에 산으로 둘러싸인 히말라야산맥의 국가
언어: 네팔어(90%), 10여 개 소수 부족어, 힌디어, 영어
정부 형태: 공화제
종교: 힌두교 85%, 라마 불교 10%, 무슬림 3%, 기독교 1%, 기타 1%

1. 정세

네팔 공산당(마오이스트)은 1994년 만들어져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의 이념을 추종하는 네팔 공산주의 정당을 말한다. 반군(反軍) 활동을 통해 네팔의 왕실을 폐지하고 네팔을 민주화했다. 1996년 이후 네팔 공산당 의장인 프라찬다의 지도 아래 마오쩌둥의 노선을 따라 농촌에서 해방구를 만들고 인민 전쟁을 펼쳤으며 산악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쳤다. 2001년 채택된 프라찬다 노선에 따라 모택동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4월, 왕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헌 선거에서 네팔공산당이 제 1당이 되었고, 8월 15일 실시된 제헌의원 투표에서 프라찬다 네팔 공산당 의장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후 종교의 자유화를 선포하고 세계 자유 진영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조정을 받는 힌두 강경파에 의해 언제든 다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2. 경제

네팔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2015년의 국민소득이 약 \$600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81%가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이다.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3%, 나머지는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개발국, 전형적인 후진국의 형태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주목된다. 특별히 2010년 아이티 대참사보다 16배 강력한 2015년 4월 7.8의 네팔 지진으로 인하여 그동안 조금씩 일어나도 있었던 경제성장이 2년간 정체되었으나 2017 후반부터 다시 밀고 일어나고 있다.

3. 종교 일반

네팔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힌두교 왕국이다. 전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에 속한 신자이다. 힌두교는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유일신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이기보다는 토속적 유사종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힌두교는 철학적 힌두교, 대중적 힌두교, 부족적 힌두교, 신비적 힌두교, 세속적 힌두교로 구분되어 진다.

힌두교의 특징은 첫째 창설자가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공통으로 믿는 교리가 없는 것이며, 셋째는 교회와 같은 제도

화 된 기구가 없다는 점 등이다. 또한 힌두교는 신앙의 형태가 다양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만큼 신앙의 실천과 의식이 다르다. 힌두교란 이름은 지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는 신두라는 말이 와전된 형태이다. 힌두교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이다. 힌두교 경전은 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쓰였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스루티(sruti)와 스므리티(smriti)이다. 스루티란 예언자들이 보거나 들은 영원한 종교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베다(Vedas)이다. 일반적인(인도) 힌두교의 신으로 숭배하는 신으로는 3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브라흐마 즉, 창조의 신으로 모신다.

4. 기도 제목

통계 수치나 양적 팽창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한 영혼의 질적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5. 사역 방향 및 내역

1) 청소년 리더쉽 훈련

현지 지도자들이 변화되기는 어려움이 많다. 문화적 접근으로 청소년의 리더들을 찾아야 한다. 3년 전 개척한 '주빌리 교회'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고 있으며, 이들과 월요 성경 공부와 수요 찬양 예배로 함께하며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여성 사역

여성들을 깨워 매년 8,000여 명의 소녀들이 인도, 중동, 홍콩 등으로 팔려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아버지의 집'에 19명의 소녀와 3명의 Staff이 함께 살고 있다. 5년 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소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밝게 양육되어 가고 있다.

3) 산악지역 가정교회 개척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을 마치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이 스쳐 지나가지 않은 곳에서 작게는 200~300명, 크게는 2,000~3,000명이 모여 살고 있다. 6년 전부터 함께 동역하는 베니 '은혜교회'와 함께 '무스탕' 지역의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현재 두 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으며 지속해서 세워져 나갈 것을 소망한다.

4) 2015년 대지진 이후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찾아 자연스럽게 흩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3년간의 세월은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종족이 따마족이다. 이들은 대부분 산속에 태어나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이런 종족을 지진으로 인하여 흠으셨다.

5) 좁혀진 시간

어느 선교지나 그러하듯이 복음은 흘러간다. 2008년 종교 자유화 이후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2018년 5월 지금부터 네팔 정부의 기독교를 향한 압박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 비교적 평온했던 10년이 지나가며 이제는 힌두 강경파 중심의 국가 권력기관의 탄압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홍추민, 홍보영 선교사 올림

♡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영유아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기저귀도 못 벗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아기들을 모아놓고 무슨 예배냐고요? 주일 오전, 임마누엘 장로교회 영유아부실에서는 작은 천사들의 찬양과 기도가 메아리칩니다. 0세에서 40개월 사이의 영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영유아부는 0~12개월 (사랑반), 13~23개월 (화평반), 24~30개월 (온유반)과 30개월 이상(기쁨반) 등 연령별로 4개 반으로 구성되어 2부와 3부 때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 어린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선생님의 품으로 전달됨으로 시작해서 네발로 기고, 두 발로 뛰어놀고 결국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장 과정이 영유아부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이 시기는 개인의 자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밝게 자라게 하는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임마누엘 영유아부는 예배드리러 온 부모님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곳이 아닌, 아이들이 두 손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 영유아부 예배의 현장

주일 오전 9시 50분, 24개월에서 36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모이는 온유반과 기쁨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작은 백팩을 등에 멘 아이들이 한 명씩 영유아부 교실로 들어옵니다. 청결

용 앞치마를 입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 명씩 인사하며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한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네요. 엄마 아빠와의 헤어짐과 주일학교의 낯섬을 이기기에는 너무 어린 탓일까요? 하지만 아이를 내내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선생님의 기도와 이야기 속에 아이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슬며시 선생님 품에서 내려가 친구들이 놓고 있는 자동차를 스윽 만져봅니다. “눈눈, 성경 보고요 코코코, 숨을 쉬고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찬양과 율동 시간이 지나고, 박은수 전도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울고 어느 때에 웃죠?” 예레미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친구들은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합니다.

영유아부는 아무리 글씨도 못 읽는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영유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올가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에스더 누나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있네요. 영유아부에서



는 유스부 (Youth Ministry)의 아이들에게 지도력 양성과 훈련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유스 아이들이 어른 교사와 함께 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 전부터 만 두 살 이전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랑반과 화평반의 찬양시간입니다. 슬금슬금 율동을 하다가도 수줍어 눈을 가리는 아이, 아직 앉지도 못하여 선생님 무릎에 안겨 있는 5개월 된 아기는 선생님의 손사위에 맞춰 찬양에 참여합니다. 몇 주 전 엄마와 함께 참여한 영유아부 VBS에서 이미 익힌 찬양이라 모두들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부 VBS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동영상과 인형극, 리본 막대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아이들도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고 감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레미아의 눈물을 함께 배웠습니다.

11시가 가까워져 오자 낮잠 시간이 된 어린이는 엄마를 찾아요. 사랑반의 대표 남자 선생님이신 한 선생님은 이미 큰 아들이 있음에도 사랑반의 교사를 하면서 아이 낮잠 채우는 법을 터득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마스터의 경지에 이르러 아이들이 졸려지면 선생님을 먼저 찾아온다고 해요. 선생님 품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잠투정을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 것은, 하나님과 아이의 관계처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진 덕분이겠죠?

★ 믿음의 씨앗을 발아시키고 뿌리를 강하게 하는 영유아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백악관의 모습이 그려진 West Wing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며 든 생각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이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을 움직



이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가 아닌 지금부터 어둠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아이들을 교회의 미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성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3년의 시간이 인격 발달의 7~80%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 영유아기의 신앙은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뵈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창 35:8)

“유모 드보라는 성경에서 아주 짧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야곱의 집안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포함해서 11명이 잘 태어나 자랐지만, 마지막 벤나민은 태어날 때 엄마를 잃게 됩니다. 제 추측으로 유모 드보라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유아부는 어린이들 신앙생활 시작에 중요한 드보라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안에 저는 드보라와 같은 할머니 전도사가 되어 어린이들이 울고 싶을 때, 보호받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와 쉬고 싶을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고 싶습니다. 10여 년의 선교 생활 후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로 돌아오니, 청년들이 자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꼭 제 손자, 손녀가 오는 듯 그저 기뻐했습니다. 매 주일, 전도사와 어린이들의 만남이 아닌 가족들과 만나는 마음으로 영유아부는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 박은수 전도사 (영유아부 담당)

글 | 김연희 (북부평원 폴라목장, 편집팀장)





민형규 목장

동부 평원, 햇빛 되게 하소서!

3개 초원 14개 목장으로 구성된 동부 평원은, 교회 동북 방면인 밀피타스로부터 프리몬, 헤이워드, 그리고 산 넘어 트라이밸리지역과 더 멀리는 오클랜드까지 경계가 없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인적 구성은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적고 젊은 가정이 많은 편이며, 백준호 평원 장로님, 최철수 평원 총무님, 이영기 평원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동부 평원의 사역 목표는 교회 목회 방향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는 VIP 전도와 거룩한 삶을 (고전 3:16) 힘써 실천해 왔으며, 내년에는 선교의 해를 맞아 성령 충만으로 권세 있게 선교하는(행 1:8) 평원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 평원은 크기는 작지만, 단합이 잘되며, 2018년 목자/부목자 수련회 때 참석률이 가장 높아 통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올 연말에는 평원에서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이남종 선교사님) 단기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선교의 열심이 뜨거워 이미 10가정 39명의 성인과 자녀들이 선교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평원 장로로 섬기시는 백준호 장로님과 백영희 권사님은 자상한 부모님처럼 평원의 각 가정을 돌보시며 목자/부목자님들을 격려하십니다. 교회 친교실에서 늘 평원의 가정들을 일대일로 만나 격려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평원 총무이신 최철수 목자님은 남해안의 작은 섬(연홍도) 출신으로 낚시와 캠핑을 즐기며 물질(* 편집자 주: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다)로 전복을 따는 특기가 있으십니다. 취미로 뒷마당 경작도 하시는 부지런한 가장이며, 교회에서도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김장 때마다 솔선하시고, 평원을 말없이 든든히 섬겨주십니다.



임승범 목장

최철수 초원: 프리몬 지역에 있는 최철수 초원에는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최철수 목장은 최철수 목자님과 무숙자 사역을 열정으로 섬기시는 서자연 부목자님이 섬기시며, 3부 찬양팀을 섬기시는 박태욱/박희경 가정이 제일 막내고, 이희중/손형주 가정은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입니다. 성경학교를 섬기시는 홍일구 가정이 있고, 김창식/홍정희 가정이 제일 웃어른이십니다.

중국순회 목장은 오랫동안 김성국 장로님과 김백미 전도사님께서 목자/부목자로 섬겨주신 연륜이 있는 목장입니다. 저희 평원 최고 연장자이신 최재항/윤영숙 가정이 있고, 알비소 지역 굿 뉴스 클럽을 열심히 섬기시는 민덕기/민미순 가정이 속해 있습니다. 이번 봄에 텍사스로 이사하신 최재창/최용희 가정도 오랫동안 함께 섬기셨고, 김현곤/김을구 가정도 조용히 교회를 섬기시는 동부 평원의 기둥 같은 목장입니다.

윤정희 목장(강현정 부목자)은 목원들 모두 조용하면서도 성실하게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성장한 중년 목장으로, 목장 모임은 진지하면서도 삶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늘 새벽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민경률/김연진 가정과 찬양대를 섬기시는 김진형/박미숙 가정, 이번에 온 가족이 네팔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이래희/권혜영 가정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팀을 섬기시는 이래희 성도님은 목장 모임 때 찬양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엄태호 목장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 목장으로, 지난 초원 소풍 때는 6가정 전원이 참석하였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VIP 전도에 힘쓰는 목장입니다. 올여름 아이티 선교를 다녀오신 엄태호 목자(전영주 부목자)님의 열심만큼 목원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진형 목장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내는 목장입니다. 어린이 사역에 큰 열정을 가지신 윤진영 부목자님과 함께 최원목/서진숙 집사님 가정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젊은 가정이 친밀하게 연합하여 떡을 떼며 VIP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진형 목자님은 바베큐 구이가, 어머니 지경자 권사님은 평양냉면이 특기인 맛깔난 목장입니다.

민형규 초원: 트라이밸리 지역에 있으며, 교회에서 가장 먼 지역이라 교회 여러 행사나 성경공부를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으며,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황대행 목장

민형규 목장은 새신자들과 VIP가 함께 참여하는 인적 구성이 다양한 목장입니다. 1부 찬양대를 섬기시는 한영인/한미선 가정이 있고, 2부 찬양팀 리더이신 정용익/이정은 B 가정이 목장에서도 찬양 인도로 섬기십니다. 박재홍/이정임, 윤여훈/박윤성, 우현택/황인주 가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형규 목자님의 조용한 리더십과 유정혜 부목자님의 열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목장입니다.

임승쾌 목장은 헤이워드 지역에 있으며, 동부 평원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목장이지만, 새벽기도 참석과 교회 봉사에 가장 앞장서는 목장입니다. 크로마하프를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여자 목원들께서는 사랑의 장터를 도맡아 봉사하고 있고, 남자 목원들은 매 주일 귀한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임장로님의 유머 있고 차분한 리더십이 돋보이고 임영희 권사님의 자상한 손길이 빛이 납니다. 안철/강경녀, 박창현/박영자, 이완표/이혜정, 원동우/원부강 가정이 함께 하시는 목장 모임은 활력이 넘치고 동부 평원에서 가장 시끄러운 (좋은 의미에서) 목장입니다.

임승범 목장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나눔이 풍성한 목장입니다. 최도준/최윤미 가정과 문한규/이정은 C 가정이 2부 찬양대를 섬깁니다. 조진우/조연주, 김경환/석강희 가정이 속해있는 이 목장은 우리 교인이 아닌 가정들도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VIP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임승범 목자님의 리더십과 이혜정 B 부목자님의 따뜻함이 단란한 가정들이 모인 포근한 목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우상중 목장은 산라몬에 있으며, 친교부에서 수년째 봉사하고 계시는 박경표/문재란 가정이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섬기시는 손수현/고은순 가정과 어린아이가 있으신 이택형/최선혜 가정, 강우진/원유진 가정과 강효성/황지영 B 가정 등 젊은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상중/우주양 목자님 부부는 수요 찬양팀과 3부 찬양팀을 섬기시며 목장의 자녀들 모두 교회에 오기를 좋아해 교회에서 자주 모이는 목장입니다.

황대행 목장은 작년에 목자로 임명받으신 황대행 목자(이영은 부목자)님이 섬기고 계시며 황목자님 부부는 2부 찬양대로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에 목장에 합류하신 권혜은 가정과 선교부에서 섬기시는 김병모/김인정 가정, 그리고 이쁜 세 딸이 있으신 이광렬/이캘리 가정이 있습니다. 목장 규모는 작지만, 꾸준하게 목장모임으로 모이고 올리브 블레싱도 잘 모이는 모범 목장입니다.



강창범 초원: 밀피타스와 프리몬 지역에 있으며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강창범 목자님은 올해부터 초원 목자로 섬기며 3부 찬양팀을 섬기고 계십니다. 강창범 목장(김현미 부목자)에는 젊은 6가정이 참석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많아 올리브 블레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목장에 새로 오신 김준일/박민경 B 가정의 아들 강민이도 목장 모임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분가를 생각해야 할 만큼 목장이 성장했습니다.

송준현 목장은 송목자님과 이윤경 부목자님을 중심으로 최송관/박수진, 이갈렙/이찬희, 박연화 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정이 적지만, 매주 모이기에 힘쓰며, 이찬희 자매님은 올해 처음으로 유아방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송관 성도님은 선교부를 섬기면서 이번 여름에 딸과 함께 목장 후원 선교사님을 방문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단기선교를 갈 정도로 선교에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장입니다.

싸이판 목장은 목자로 섬기시던 전광수/전성숙 장로님 내외분이 부서를 옮기시게 되어 현재 목자가 공석입니다. 정성보/정선희, 김기민/김은경, 성승철/임은아, 염성호/염자영 가정 모두 목자처럼 자율적으로 목장 모임을 잘 진행하고 계시며, 교육부와 전도부 등에서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평원의 자랑 우병기 목장을 소개합니다. (다른 목장은 자랑이 아니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ㅎㅎ) 우병기 목장은 동부 평원에서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목장입니다. 네 가정이 함께 하시고 우병기 목자님과 최유진 부목자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가정들과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고 계시며, 두 분의 섬김을 통해 목장 식구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원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원에 얼마나 훌륭한 목자/부목자님들을 세우셨는지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부 평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장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동부 평원의 모든 가정이 목장에 참여하여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신신하고 힘차게 주님 나라 위해 전진하는 동부 평원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 이영기 목사 (동부 평원, 지역봉사 위원회 담당)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인도 블레싱교회와 함께 드린 찬양 예배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렘 32:27).

하나님께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은 작년 11월, 탈북자 선교 자선 음악회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찬양대의 작은 순종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의 말씀이었다. 시온 찬양대를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 이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 오히려 평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던 중 수요 예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 중인 인도 Blessing 교회를 위해서” 라는 소제목이 마치 큰 전광판의 네온 싸인 글씨처럼 내 맘에 새겨지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조금 후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 마음에 두 번째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 12: 2~3).



전 세계 1/3의 미전도 종족이 인도 땅에 있다. 13억 힌두의 영에 묶인 인도 사람들, 그 땅에서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작은 디아스포라 교회인 Blessing 교회를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_you will be a blessing!” 라고 선포하시며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Blessing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작은 인도교회인 Blessing Church는 Cyril과 Jemima Rayan 부부 목사님과 다섯 가정의 모여 5년간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정말 몰랐다. 가끔 주일에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 때, 인도분들을 한 두 분 보곤 했지만, 그분들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찬양대 임원들과 찾아간 블레싱교회는 정말 초라했다. 예배시간이 되자 한두 분씩 초등부실로 모이기 시작했다. 목사님 부부와 두 자녀가 자신들의 키보드와 드럼을 가져와 셋업한 후 다섯 가정 남짓한 인도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후 다시 짐을 싸서 떠나는 주일의 반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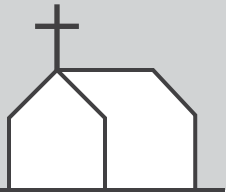
드디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 EM과 KM이 함께 어우러진 찬양팀의 간절한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David Moon 목사님을 통해 Unity 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 54:1~5, Enlarge your Tents) 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함께, 함께 나눌 열방을 향한 비전이 선포되었고 시온 찬양대와 블레싱교회는 찬양으로 주님을 뜨겁게 높여 드린 후 복음을 위해, 이 지역의 2세들을 위해 함께 나아 가자고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서로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맘속엔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 드리진 이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여겨진 바 된 우리의 실체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연합 예배 후 바로 다음 날, 친절하신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드린 예배,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선교였다. 그날 시온 찬양대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 드림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을 확증 할 수 있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 살아갈 때
삶이 되는 /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블레싱교회와 시온 찬양대의 연합 찬양 예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 함께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린 믿는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는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간다.

글 | 설정선 (북부 평원, 1부 시온 찬양대 지휘자)



Blessing church experience

At first, I was not expecting much and I just thought the joint service would be a regular service, except with more people. However, I realized that this service was extremely special. As we were singing praises along with them and even though I did not know how to speak their language, I still felt like God was so happy and proud of what we were doing. I could tell that God was really pleased to see that our racial differences did not set us apart, but that we were united in Him. I was very humbled by this experience because God helped me realize that we should not be aliens to each other, but we we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lthough everyone there was already a believer in Christ, I brought two of my friends that were non-Christian Indians from Hindu families. I thought that both of them would refuse our invitation and stay home, but surprisingly, they both decided to come. I was so thankful that God brought them to that gathering even though both of them had never attended a real church service before. Afterwards, I thought that they would say that the service would be “O.K.” or “alright” but when we left the church, both of my friends said they would come back to our church or the joint service if we invited them again.

Also, when we went to share the gospel and invite one of my friends to the service, he seemed apathetic and unhappy. However, we prayed with him that he would find true joy and happiness in God and that God would encounter him. After the service, I realized that God really did meet my friend. He opened up to me more, seemed happy and almost seemed like a different person. In the end, I was so happy for both of my friends and how God was able to move through their hearts in this service.

I was so encouraged by the smiles and warm greetings that I received when I first entered the service room and when the Blessing Church and our church were eating together. I could tell that despite all their hardships and worries, the people of the Blessing Church still had great hope in God and that even though they have continually faced challenges, they were still holding on to God with so much dignity and strength. The way they talked, prayed, and worshiped was the evidence that the hardships in their walk with God did not stop them, but they were strong and courageous people that picked themselves up even when they fell. As I listened to them, I realized that God would use them in many places and that he would continue help them reach the finish line.

I was also extremely thankful for the Zion choir for giving up their time to rehearse and also go to the service to worship God with the people of the Blessing Church through music. I am also thankful for all the hard work that conductor Seol put into this wonderful service that was able to unit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Blessing Church with our church. Without it, my friends would not have come either and I would not have experienced such kindness and love that the people of the Blessing Church showed us. I truly thank God for such a wonderful choir and for a caring and enthusiastic conductor.

In the end, we are not just Indians or Koreans, but we are all united by God's family and therefore,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 think that God has so much in store for both of our churches and I hope that this event will spark more churche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e and experience God.

Written by Jimmy Lee (이영진, Youth 11th, KM Zion Choir chamber)



가상현실교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자의 눈)

“가상현실교회(VR Church)로 오세요”

만약 실제 교회 앞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면 분명 ‘이단’으로 취급받았을 것이다. 실제 교회에 가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니. 얼핏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하다. 이미 가상현실 공간에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으고 있다. 주일 오후에는 사는 곳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 시간에 맞춰 모여 예배를 드린다. 처음엔 한 명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십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고 있다. VR교회엔 성경 앱도 있어서 실행하면 성경 구절과 함께 관련 내용이나와 성경을 VR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실제 가상현실교회가 나왔고 직접 설교하는 목사도 등장했다. 심지어 ‘세례’도 가상현실에서 구현한다. 이런 스토리를 듣기만 하면 일견 거부감이 먼저 들 수 있다. 교인들이 매 주일 교회에 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VR교회를 경험해보면 “놀랍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 서부 시간으로 주일에 동시에 접속해서 담임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는 체험을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란 생각에 이르게 된다.

실제 데이비드 조나단 소토 (DAVID JONATHAN SOTO, LOS ANGELES, CA) 목사는 올해 초부터 ‘VR교회(VR Church)’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다. DJ 소토 목사가 미국의 유명 IT 잡지 와이어드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목회 중이던 펜실베이니아주 레딩(READING) 지역의 한 대형교회를 그만두고 가상교회를 세웠다. 그는 “죄인들, 불이익을 당한 자들,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지금의 교회는 주일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만 행복하게 설교했다”며 “내가 복



〈VR 교회 초기 화면〉



〈VR 교회에 아바타 모습을 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습.〉

가상현실에서는 아바타가 활동한다.〉

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의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었다”라며 본인의 평소 목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VR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소토 목사는 “우리의 비전은 교회의 경험을 사람들이 있는 곳(VR)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앞으로 VR은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쇼핑과 여행 같은 곳에서 VR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VR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상현실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깊게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이 같은 현실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향후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에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예배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TV로 설교를 시작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TV로 중계되는 설교를 실제 설교라고 봐야 하는가?”라는 논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연장 선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 각 교회별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붐이 불었다. 하지만 당시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설교 내용을 올리면 주일에 실제로 교회에 오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만족한 나머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신자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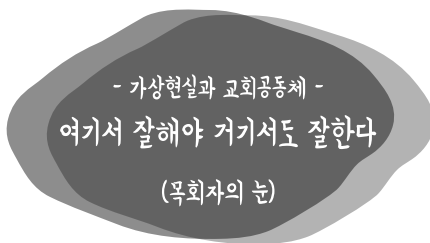
가상현실교회는 TV 설교, 교회 홈페이지 등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이디어다. 장점이 분명히 있

다. 우선 몰입감이 뛰어나다. 실제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 선포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하지만 VR교회는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면 VR에서 나갈지언정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 전 세계에서 교인들을 모을 수도 있다. 한 날 한 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VR에 접속한 신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것은 VR교회의 장점으로 꼽힌다. DJ 소토 목사는 지금까지 네덜란드, 뉴욕,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캐나다에서 가상교회 신자들을 끌어들이 여러 번 설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을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로 유명한데 VR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실제 성지순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복음에 다가가기 원하는 특히 10~20대 젊은 세대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이런 첨단 기술은 실제 교인 기반이 탄탄한 기존 교단보다 처음 시작하는 이단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또 VR교회는 몰입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TV나 홈페이지처럼 기존 교회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교회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즉, 실제 사이트에는 교회가 없고 ‘VR ONLY CHURCH’가 계속 등장할 수도 있다. 소토 목사의 VR교회에서는 세례를 제공하는데 아바타가 세례를 받는 것이어서 이것이 진정한 세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고 실제 많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VR교회는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미 현실이 됐다. VR교회 등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인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 | 손재권 기자
(남부 평원 브니엘 목장, 매일 경제 실리콘 밸리 특파원)
사진 출처 | VR Church: The Bible | Oculus, VRScout



우리에게 가상의 공간은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웬만한 사람은 자신의 SNS 계정 하나쯤 갖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모순적인 모습도 많이 존재한다. 현실에선 게으름뱅이에 자아로 가득 찬 사람에 불과한데, 자신의 SNS에선 얼마든지 성인군자처럼 보이게 조작할 수 있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한편으로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좋은 공간이기도 하다.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든 약점을 가감 없이 무장해제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동호회 게시판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에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세계가 게임을 비롯한 개인적인 엔터테인먼트 수준에 머무는 줄 알았는데, 손 기자님을 통해 가상현실 교회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평소 IT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조나단 소토 목사를 통해 개척된 가상현실 교회에 관한 소개는 참 흥미롭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한 담임목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가상현실 예배에서 자신이 설교하고 있으면 종종 무신론자인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보고, 예배 이후에 이야기를 함께 솔직하게 나눈다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그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깊은 질문이 든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예배에 참여해서 필요한 영적 충족을 얻으면

교인의 임무를 다한 것일까? 가상의 물속에 아바타가 입수해서 세례를 받기도 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며 이런 질문도 함께 든다. '그렇다면 성찬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의 떡과 포도주를 아바타가 받는다면...?'

이미 웹 공간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며 실시간으로 설교에 관한 피드백을 나누는 교회들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론 미국 Life Church의 크렉 그로셀(Craig Groeschel) 담임목사를 들 수 있다. 미국 내 10개가 넘는 주에 위성 교회가 있으며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등록되어 있다. 웹상에 들어와서 동시에 예배드리기는 '온라인 교회' 교인의 숫자를 합하면 20만 명이 넘는다. 홈페이지에서 교인들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채팅을 하며 설교에 대한 나눔을 하는 것이 일상이다. 미국 내 주요교단은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교회'를 수년간의 논쟁을 통해 이미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지역 곳곳에 위성 교회를 개척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한 교회'라고 외치는 모습 역시 낯설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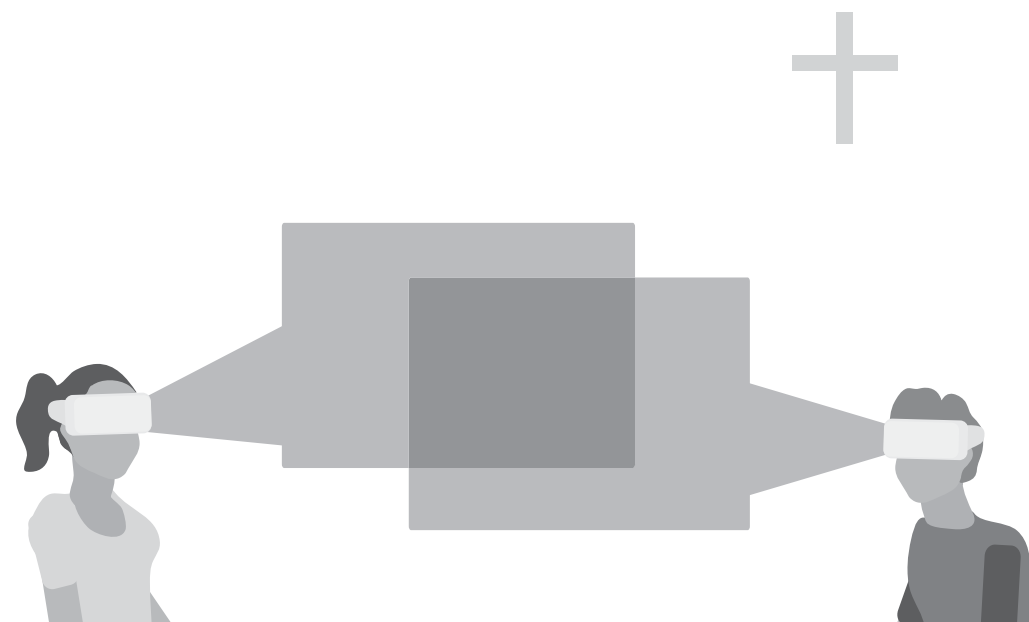
그런데 '가상현실 교회'는 좀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온라인 교회'에서 영적인 채움을 받은 교인들도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다가와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로 끌어오려는 것이 온라인 교회의 목적이라면 '가상현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 주일 정해진 시간에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아바타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다.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미국 내에 만연된 '소비자주의'적인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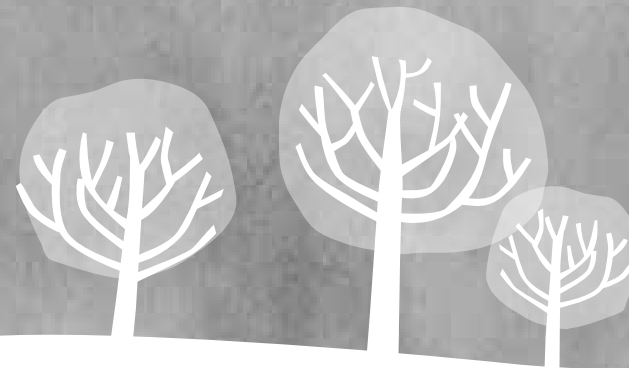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교회도 결국은 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는 모습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몸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 유기체이다. 주님과의 소통, 성도와의 소통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는 성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합 속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 Physical 한 섬김, Physical 한 나눔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1~3절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한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되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사귄"(koinonia)을 누리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가상현실 교회'에서 누리는 사귄은 진정한 사귄이라고 말할 수 없다. Physical 한 섬김 없이 Virtual 한 섬김도 있을 수 없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세계를 통한 복음 전도, 성지순례 체험, 성경 지리 공부 등의 교육적인 방편은 유익하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혼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식탁을 차려 주셨던 주님, 40일 동안 함께 부활한 몸으로 먹고 마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 보자.

글 |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예배, 신앙위원회 담당)





오늘이 내날이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가지고, 무엇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되지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둔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손양원 목사 (1902~1950)



발달 장애인과 대화할 때

- 추상적인 개념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며, 복잡한 개념은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말의 속도나 어휘 선택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도록 합니다.
- 발달 장애인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 발달 장애인은 때때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하며, 같은 질문 내용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반복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발달 장애인은 빠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려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그림문자(픽토그램)가 들어있는 안내판은 발달 장애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발달 장애인은 익숙한 주위 환경과 일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일과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미리 알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교육부 제공

전도는 HEART TO HEART다.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뛰는 나의 HEART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거듭난 그 사람의 HEART로 옮겨 가는 여행이다. 그 여행 과정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쌓여가고 관계가 윤택해지며 양육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 끝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선다.

영혼의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그저 심장이 뛰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면 영혼을 안타깝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야 한다.

“그 단 한 명을 위한 사랑의 심장이 당신에게 뛰고 있는가?”

출처 |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 (김성태 목사 저, 삼척 큰빛교회)



메밀국수 장국

남편과 제가 동부에서 이곳 산호세로 이주해 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부에 비해 너무 높은 생활 비용과 비싼 집값 등은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어린 저를 한없이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곧이어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기업들은 해고를 강행했고 집값을 여는 제 손은 항상 떨렸으며, 기름값도 치솟아서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음에도 벌벌 떨며 운전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서 알게 된 이웃 언니가 점심 초대를 해주었는데, 시원한 메밀국수 장국과 칠리새우로 멋들어지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다시 한번 작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저도 함께 성장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우리 가정은 산호세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기억도 있지만, 때마다 감사의 기도뿐인 이곳에서의 정착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편해져서도 아니고, 이곳 경기가 더 살기 좋아져서도 아니었으며, 남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직장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 아이들 키우는 것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적인 편안함의 정도를 떠나 이곳이 우리 안식처가 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름방학의 한가운데 너무도 더웠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성도님들께 시원한 메밀국수 장국을 소개해 드리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마켓에서 파는 한 병짜리 메밀국수 원액에 아껴서 찍어 드시지 마시고, 간단하고도 맛있게 진한 장국 원액을 만들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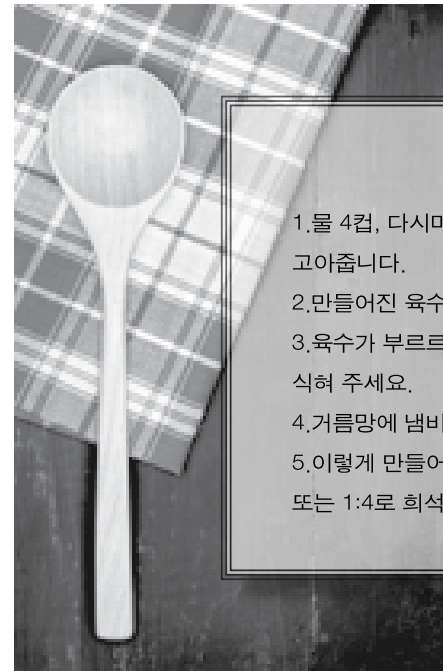
〔메밀국수 장국 (원액) 만들기〕

재료: 설탕 2컵, 간장 2컵, 가츠오부시(가다랑어포) 2
줌, 물 4컵, 다시마 한장, 멸치 15~20마리, 디포리(벤
댕이) 5마리 (생략 가능), 무 반개, 양파 한 개



〔육수 내기〕

1. 물 4컵, 다시마, 멸치, 디포리, 양파와 무를 넣어 물의 양이 반이 될 때까지
고아줍니다.
2. 만들어진 육수 2컵에 설탕 2컵과 간장 2컵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3. 육수가 부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가츠오부시 두 줌을 넣고 뚜껑을 닫아
식혀 주세요.
4. 기름망에 냄비 채로 부어서 원액만 받아냅니다.
5. 이렇게 만들어진 메밀국수 장국은 원액이기 때문에 원액 : 물의 비율을 1:3
또는 1:4로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밀국수 장국의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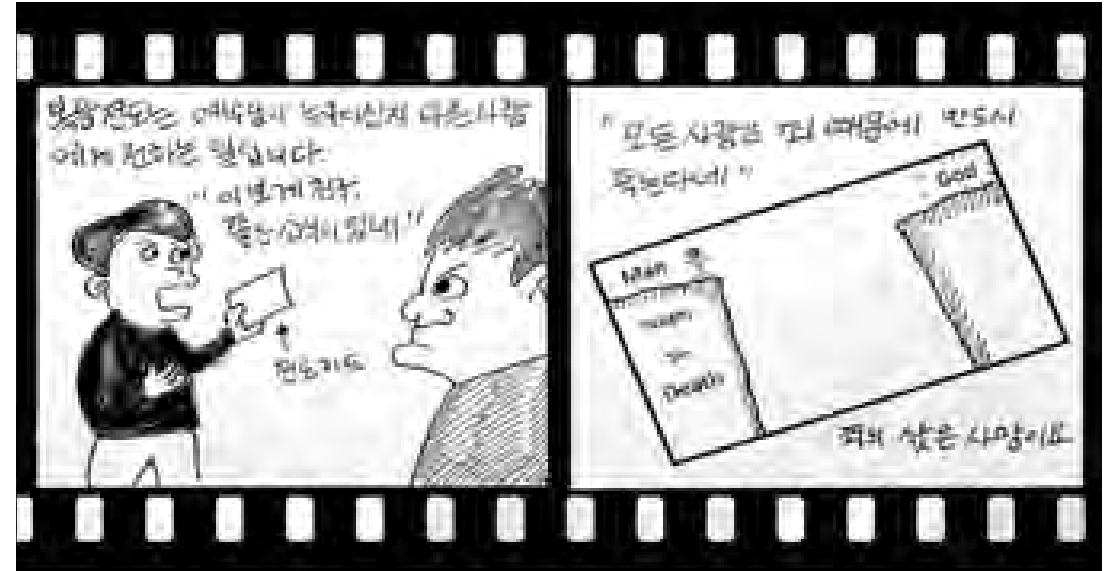
장국을 더 연하게 희석하여 상추, 깻잎, 오이, 썩갓, 당근, 양배추 등 각종 채썬 채소와 함께 면에 부어 상에 내면, 장국에 담
가 먹는 것보다 더 시원한 냉면 스타일의 메밀국수를 즐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장국을 따뜻하게 데워, 달걀을 풀
고 원하는 채소와 닭가슴살을 찢어 넣고 온면으로 드셔도 됩니다. 후라이팬에 튀겨낸 돈가스를 넣고 장국을 자작하게 부은
후 끓어오르면 돈가스 위에 채썬 양파와 달걀을 풀어 넣고 뚜껑을 잠시 닫아두었다가 밥에 얹어 내면 가쓰どん이 완성됩니다.

글 | 김연희 (북부평원 폴라목장, 편집팀장)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 성 어거스틴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 St. Augustine



글. 그림 | 임명진 (산호세 평원, 호산나 찬양대 베이스팀장)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내보일 수 있는 담대함은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그다지 아름답고 천당 같은 곳이 아님을 사람들은 대번에 눈치챱니다. 우선은 자신의 약점을 내보였다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이 시대는 누군가의 연약함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조차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사용할 여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손빨래 대신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주고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계산기를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엑셀만 잘 사용하면 분류에서 통계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자동차로 최단 시간에 원하는 곳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바빠지고 남을 위한 시간 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참 역설적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더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몇 마디 말로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 주변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만큼의 기준에 달성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조용히 죽어가기도 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장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은 돌아가신 분의 주변인들 대부분이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당사자의 죽음을 매우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기에 자살이 죄라는 인식 때문인 것은 잘 압니다.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왜 육신의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처럼 이분들을 대우하지 못했나에 저의 마음이 쓰입니다. 자살은 매우 불행하고 극단적인 사건이지만, 우울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 깊은 마음의 병을 앓다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편견 때문에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누군가 말할

정도로 폭넓게 퍼진 질병임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당당히 기도 제목으로 공개하면서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며 쉬쉬하는 모습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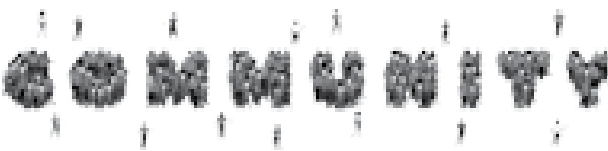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표현에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된다." 아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아프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반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몸의 비유'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몸의 본질에 관한 두 가지 귀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약하고 귀하지 못한 지체를 가장 존귀하게 대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고전 12:22~23).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쑤시개를 가지고 몸을 찌르기 시작하면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눈동자가 아닐까요? 약하게 찢러도 바로 피가 나고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과 속눈썹 등의 존

재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몸은 가장 약한 부분을 기를 쓰고 보호합니다.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발은 양말이나 신발 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단단히 보호합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는 이들을 기를 쓰고 보호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관심 또한 이곳에 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의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의 고통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전



12:26). 누군가 무기를 들고 몸의 한 부분(지체)을 깊게 찌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 전체는 그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몸 전체가 폭 쓰러지고 맙니다. 그 지체의 고통에 대응하면서 몸의 모든 에너지가 그 부위로 몰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래야 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몸 전체가 다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고 소리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박성호 목사
(북부 평원, 화요 여성예배, 신앙위원회 담당)
참조 | '몸의 비유'
(설교자의 일주일·김영봉 목사 저)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 (c.1519-1520)

Oil on panel Vaticano, Pinacoteca Apostolica Vaticano, Rome



위의 그림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 미술가인 라파엘로(Raphael, 1483~1520)가 그린 [변화산의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라파엘로는 다양한 주제로 많은 성화를 그렸는데 그중에서도 그의 최후의 작품 주제는 바로 변화산의 예수였습니다. 이 작품의 원본은 가로 278cm X 세로(높이) 405cm 크기이며 20명이 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그가 죽기 2년 전인 1518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다 완성하지 못한 채 1520년 자신의 37번째 생일날 요절하게 됩니다. 사후 그림 하단 부분은 그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색칠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 구절의 한 장면을 주제로 하여 성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Studies of Two Apostles for the Transfiguration(detail) by Raphael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 1~5)

이 작품은 마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변모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그림 중앙에는 공중을 나는 듯한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상단부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소재로 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그의 바로 밑에서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는 수제자인 요한, 베드로, 야고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파엘

로는 좌우대칭인 그림을 많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각편대 그리고 좌우로 대칭적 구조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원래 여성들을 가녀린 모습으로 그렸으나 훗날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아 근육질의 여성과 아이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 그림에서도 그 경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활 후 변용된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 부르는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평가에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평론가들은 라파엘로는 이것이 자신의 최후의 작품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한 역작이라고 평하는 반면에, 그에게 비판적인 다른 평론가들은 라파엘로의 필력의 쇠잔함이 드러난 아쉬운 작품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작품을 풍부한 회화성과 운동감, 현실, 초월성을 고도로 조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수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론적이고 회화적인 평을 떠나 이 그림의 바탕이 된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그릴 때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마음속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에 나오는 변화된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림의 하단의 산 아래에서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는 변화된 세계와 변화되지 못한 세계의 대조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이란 모세나 엘리야의 모습처럼 빛나는 모습, 광채가 눈이 부서 볼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존재적 변화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겐나오는‘태어나다’라는 뜻이고, 아노텐은 ‘다시’라는 말 외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족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가에 어느 공파라는 족보가 붙어 다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가문의 족보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호적은 이 땅의 호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기보다 저항할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욕심을 부리기 보다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당연히 가정이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땅 위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변화산 위의 빛나는 모습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동경을 받는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글 | 박민경 (동부 평원, 비취책 목장)



280 HIGHWAY를 빠져나오면서 잠든 아이를 깨운다. ‘일어나 기도하자~’ 막내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엄마가 건네준 기도문을 읽어 나간다. 한글 발음이 서툰고 목소리는 작다. 이미 수백 번을 읽었기에 낯아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이 외워서 읽는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그다음은 엄마의 기도 시간이다. 운전을 하는 엄마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막내는 눈을 감고 잠을 마무리한다. 아멘과 함께 차 문이 열리고, 딸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전쟁터’로 바빠 사라진다.

지난 15년간 내가 의지해온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째(31), 둘째(27), 그리고 막내(19)를 키울 때 항상 나의 곁에 있었던 고마운 기도문이다. 크고 작은 시험을 앞둔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사용해 온 우리 가족의 비책이다. 낡고 헤어져 사해 동굴의 구약 사본처럼 고색창연(?)하지만, 그 출발은 미미하다. 2003년 치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잡지를 읽게 되었다. 수능을 앞둔 엄마들을 위해 어느 분이 기고한 기도문이었는데 치과 직원의 도움으로 복사본을 얻게 되었다. 성경 본문과 함께 한국의 “수능”을 위해 준비된 기도문이었지만 미국의 QUIZ, TEST, SAT,…. 심지어 운동, 악기, 발레 오디션을 할 때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다.

시험이 있는 아침이면 두 쪽의 기도문을 아이와 함께 통째로 읽었다. 인내심이 부족한 남편과 마찰이 있기는 하였지만 나의 고지식함과 본질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 가정의 가장 거룩한 의식이 되었다. 밤을 새워 시험공부를 하고 출발하는 아침에도, 비행기 시간에 쫓기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계단에 앉아 “수능” 기도문을 읽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이 기도문을 통해 내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너무 질려

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했다고 믿기에 그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

같은 기도문이었지만 세 아이들이 좋아했던 말씀은 달랐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첫째는 이 말씀을 좋아했다.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첫째는 이 말씀에서 마음의 쉼을 얻었던 것 같다. 첫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현재 나의 기도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둘째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었던 것 같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둘째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지난해 집을 떠난 막내가 좋아하던 말씀이다. 이는 자신감이 필요한 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대학교 2학년. 갈 길이 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6년 전 막내로부터 나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낡고 헤어져 버린 기도문을 한글로 타이핑하여 산뜻한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 한글에 서툰 막내가 영문 키보드의 자판을 더듬어 가면서… 나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딸의 세심하고 귀한 사랑이 고마웠고, 자신을 수없이 귀찮게 하였을지도 모르는 기도문에 대한 소중함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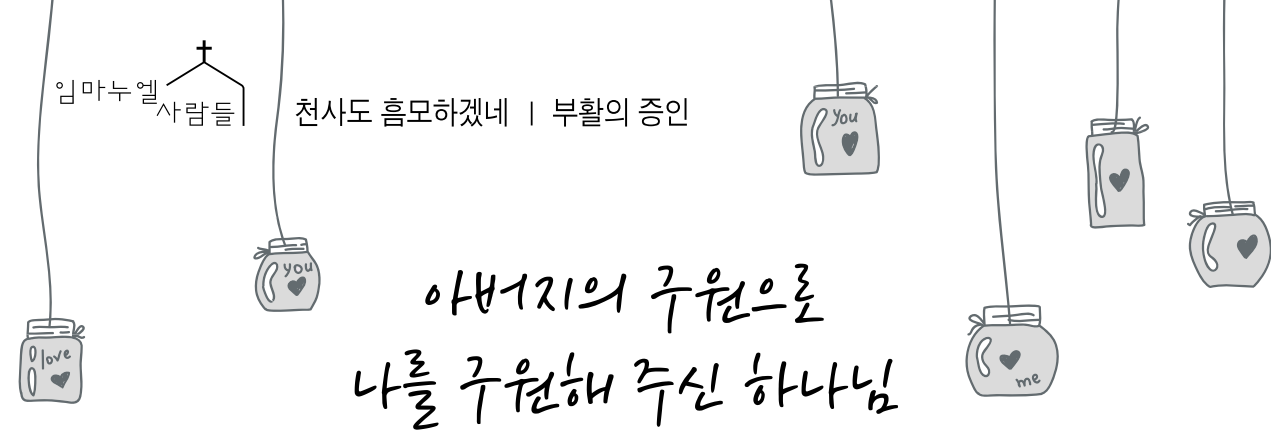
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막내의 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기도문도 이제 많이 낡았다. 우리의 삶이 기도 제목의 연속이기에 ‘정답’의 기도문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만, “수능”이라는 생뚱맞은 이름으로 15년 전 나의 손에 들어온 이 기도문은 세 아이들을 말씀 곁에 붙잡아 두는데 큰 힘이 되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만 바라볼찌라’, 그리고 ‘아픔의 축복’은 가정 예배에 단골로 등장하는 찬양곡들이다. 그중에서도 막내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였고 후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로 시작된다. 그렇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시다.

글 | 김경순 권사
(산호세 평원 모로코 목장 부목자, 가정예배 섬김팀)



아버지의 구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 온 나는, 청년의 시절에 열정 하나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개척교회라 인원이 적어 청년대학부가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나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수요일예배 반주자로,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대학부 임원으로,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단체의 지부 간사로 주 5회 교회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교회를 섬겼다.

교회 건물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하게 되면, 나 역시 이전한 교회 앞으로 차취방을 옮겼다. 교회와 집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 매우 편리했기 때문이다. 교회 어르신들은 젊은 자매가 이사까지 해가며 공동체를 위한다고 나의 믿음이 귀하고 복되다고 늘 칭찬해주셨다. 이런 생활을 3년 반복 하며 내 안에는 어느덧 교만과 허

무함이 생겨나면서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고갈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충성이 아닌, 책임감으로 섬김을 지탱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전국 곳곳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행상을 다니는 안쓰러운 아빠의 모습, 매일 떠돌며 트럭에서 생활하는 부녀의 모습이 눈물겨웠다. 다 보고 나니,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올랐다.

늦둥이 약제로 태어나 병원에 자주 입원하며 부모님의 속을 태운 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돌봐 주신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는 내게 늘 각별한 분이였다. 그런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는 것,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때 교회 일만 무턱대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 청년대학부 목장 모임을 마치고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갈 길을, 기도하며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 시간 남짓 집으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를 구원해주시면 다른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영영...' 걷는 내내 계속 기도하며 눈물, 콧물범벅이 되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주일 아침, 다시 투철한 책임감 모드로 전환되어 예배를 드린 후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각 부서의 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정훈아, 너 어디니?”
“아빠! 어디겠어? 교회지~~”
“나도 교회 왔는데~~~”
“???!!!”

한평생을 교회라고는 모르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가 당시의 발로 직접 교회를 나가시곤 그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할 막내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두어 번 집 앞 작은 교회에 들러 목사님께 전도 심방을 부탁드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에서 심방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그 교회로 출석하셨을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직접 본인 마음에 드는 시내에 위치한 크고 화려한 교회에 나가신 것이었다. 모든 사실이 다 기적처럼 느껴졌고 통화를 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어리석은 나의 뒤늦은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 주신 그 긍휼함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였다.

그렇게 몇 달이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살아계실 때 영접 기도를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목사님께 아버지의 구원 여부를 여쭙보며 죄책감으로 속상해하던 날, 꿈을 꾸었다. 큰 규모의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불러 돌아보니, 아버지가 예배당의 문밖으로 새어 나오는 눈부신 빛과 함께 성경책을 가슴팍에 안고 환한 미소로 내게 손을 흔들고 계셨다.

“아빠도 이 집회를 왔네? 너무 잘 됐다!”

꿈에서 깬 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이라는 확신에 다시 한번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 이후로 내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고, 뜻을 여쭙보고, 친밀히 교제하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소망하게 되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정으로 알맹이도 없이 맹목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더욱 믿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것과 믿음 없이 일만 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신 나의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글 | 한정훈 (산호세 평원 네팔 목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한 유치원 꼬마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늘 외우며 많은 사람에게 찬송가를 불러 주었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바로 그 찬송가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찬송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낼 때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함께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때는 그 찬송의 의미와 내용도 모르고 단지 음을 따라 부를 수 있고,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린 제게 할머니는 늘 예수님 이야기와 찬송을 통해 그분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절을 볼링 선수를 한다는 핑계로 교회와 많이 멀어진 가운데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할머니께서는 다시금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자고 하셨고, 부르기 싫었지만, 같이 부르면 좋아하시니 불렀습니다. 또 새벽예배도 그냥 나가서 앉아 있으면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나갔고, 예배 후 성경공부 역시 하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를 내든, 정말 나쁘게 할머니께 행동해도 늘 할머니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호영아, 그래도 매일 내가 너를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한 단다.” 대학 시절 밤늦게 돌아다니다 집에 오면 할머니가 매시간 전화를 하셨고, 귀찮아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리 괴롭히느냐고 심한 말까지 하지만, 그때도 할머니의 대답은 “그래 잘 들어왔음 됐다.” “할머니가 미안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심하게 말을 했는데도 거꾸로 자신이 미안하다, 용서하라고만 반복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라 믿는데요, 대학교 시절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찬송가 28장을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가사를 읽는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할머니께 효도한다고 생각하던 새벽예배, 성경공부가 바로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계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유치원, 놀이방 등을 통해 늘 아이들과 함께 놀던 기억, 그리고 늘 교회 교육부에서 일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유치부 선생님이로 지원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90세 생신을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드린 지 두 달 후에 교통사고로 두 달간 투병후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두 달간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가고,

가면 할머니는 늘 미소로 반겨 주시고, 그다음 제게 시키신 일은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일들을 거의 매일 밤 회상하며 너무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셨던 병원에서는 이제 모든 신체 장기가 말을 듣지 않고 자가 호흡이 안되기에 호흡기를 떼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동안 할머니를 간호했던 간호사분들 네 분이 할머니만 보면 “I AM PRAYING FOR YOU.” 하며 할머니께 기도해 드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도 할머니는 늘 그분들 앞에서 연신 십자가를 그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내일 호흡기를 떼게 되는데 괜찮은지” 할머니께 물었을 때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바로 하늘을 가리키며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넵니다. 인도 의사가 할머니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 이신가보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식구들과 교회 사람들이 마지막 방문을 했을 때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너무 고맙다. 그리고 다들 예수 잘 믿어라”였습니다.



호흡기를 떼던 날 모든 식구가 함께 있었고, 저만 보기 싫어서 회사를 갔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가시려 한다는 소식에 달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거의 없고, 호흡을 거칠게 쉬실 때였습니다. 사실 투병 기간 중 할머니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뒤에서는 많이 울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며, ‘저 왔어요’라고 크게 한마디 했는데 할머니께서 참 기다리셨나 봅니다. 한쪽 눈을 뜨셔서 저를 보시더니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저라는 한 영혼을 살리신 분이셨고,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과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저를 살렸고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함께 지내온 삶을 통해 할머니는 제게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 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 할머니 묘지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갔을 때,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다짐하며 할머니께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로 제가 우리 가족, 딸 아이, 그리고 맡겨 주신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할머니께서 보여 주셨던 그 기도와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다짐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제 영혼을 위해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할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글 | 송호영 전도사 (유년부 담당)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과 순종

남부 평원 세라 팍(네팔 커뮤니티)과 락 스프링스(베트남, 캄보디아 커뮤니티) 단기선교는 그동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가정 방문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과 깊고 꾸준한 관계를 맺어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헤아리며, 세부적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록 해외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은 선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가까운 이스트 산호세, 락 스프링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 전 이 지역을 섬기시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과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매번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후 남부 평원의 협력팀으로 알비스를 섬기는 목장과 저희 목장을 함께 초대해 주셔서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오전, 세라 팍에서 색칠 공부하는 한 여자아이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어느 부목자님 옆에서 소심한 성격에 지원사격으로 기도만 하던 중, 몇 가지 도움 말씀만 전했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저도 쓰임 받게 됨이 기뻐했습니다. 세라 팍에 인접해 사시는 어느 중국 자매님의 귀에 우리 선교팀의 소리가 기쁘고 즐겁게 들렸는지, 집 밖으로 나와 목사님과 제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미국 온 지 3일밖에 안 된 그녀에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중국어로 복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말을 붙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시기도 함이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주변에 있는 중국교회에 가기를 권면했고, 며칠간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크래프트도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이며,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만나 동역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락 스프링스에서 가정방문팀을 도와 아이들을 부르러 가는 과정에서 집사님은 담대하게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5 DAY CLUB을 소개하는데, 저는 날씨도 덥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모이지 않아 소극적이고 초조했습니다. 남자아이 중에는 엄마들은 보내고 싶어도 아이패드들 손에 쥐고, 게임을 하기에 바빠서 가기 싫다고 완강히 거부했고, 여자아이들은 크게 음악 듣고 노느라 안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의 때에 다른 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겠지'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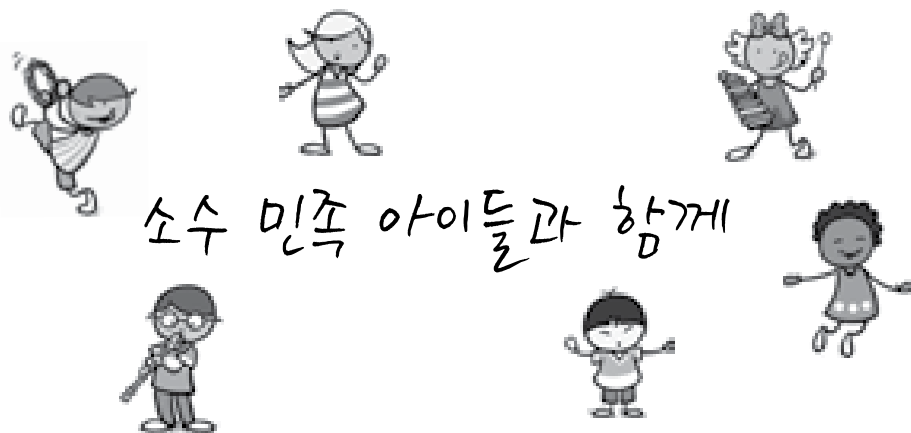
주었는데, 그때 말없이 작은 미소로 고개만 끄덕이던 KEVIN이 지금도 생각합니다.

28일 목요일 오후, 어느 집사님을 따라 락 스프링스 지역 정부 아파트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는 누군가 문을 열어주거나 차가 들어올 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밝고 씩씩한 안드레아가 우리 대신 열심히 이웃집 문을 두들겨주었습니다. 한편 빨래방에서 만난 DIEGO는 집에 가서 여동생 ZOE를 데리고 나와 같이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처음이지만, 위층 친구도 초대하였습니다. 이 남매는 다음날 STOCKTON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복음을 꼭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춘기 12살 DIEGO는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데, 4살 꼬마는 피곤한지, 글 없는 책으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들도록 격려하면서, 유스부 학생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저도 복음 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어린이의 인생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누군가에 의해 다시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인종과 언어, 세대,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대다수 팀원들께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셔서, 이번만의 단기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 있는 후원이 가능한 내 평생의 선교 개념을 부어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에도 많은 분의 열정과 땀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 퍼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인근 목장이 협력해서 목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오픈 선교로 북가주에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글 | 강주연 (산호세 평원 이스트 산호세 목장 부목자,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소수 민족 아이들과 함께

저에게 이번 선교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기에 같이 할 수 있음에 좋았으며, 여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서 또한 행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전도협회(CEF)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요즘은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계획 하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잠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저 아이들이 자라서 주의 사람들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의 마음과 감정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이 베이 지역에서 저들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이 세상도 능히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람찬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어리고, 착하고 순진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며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2년을 우리 부목자(김혜리)가 양희영 권사님과 알비스 지역과 락 스프링스 지역을 다니는 것을 한 발 뒤에서 바라만 보았던 저였기에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자매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힘은 되지 못했지만, 같이 동참함이 제일 큰 힘이라는 것을 알았고,



함께 참여함이 가장 큰 훈련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과 역사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심을 좇아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르기에 나의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주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큰 사역은 아닌 것 같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벅차고 우리 주께서 저를 통해서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만이 가장 확실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또 기대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식으로 저를 이끄시고 이루실지를...

그리고 함께 했던 팀원들이 남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참 귀한 삶과 섬김으로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선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있기 마련인데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조화롭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 모양의 섬김으로 이루어져 모든 일이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록 서툰과 부족한 5일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이 또 나를 통해서 전파되었음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어린이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이 변화될 열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행복한 꿈을 꾸입니다.



글 | 김영국 B (남부 평원 와바시 목장 목자, 국내 선교부, 건물관리수리팀, 카페 웰 아이스크림)

주님이 함께하신 사역

선교를 떠나는 전날 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며 어떤 만남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에 들떠서 잠을 설치다가 아침 5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까지 나오셔서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손목사님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는 출발했다.

샌디에고 공항을 거쳐 렌트카에 몸을 싣고, 국경선을 넘어갈 때는 그냥 통과한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모두 내려 걸어서 국경선을 넘어야 했고, 자동차는 의자 속까지 살살이 검열을 받아야 했다. 가는 길에 팔목을 빼어 통통 부어오르고, 멤버 중에 설사로 한나절 고생하는 것을 보며 은혜가 넘칠 선교여행을 저지하는 사탄의 방해를 느끼게 되었다. 잠시동안 연로한 노인들을 공격했던 사탄은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단히 무장된 우리 팀을 이기지 못했고, 하루 만에 우리는 승리했다.

엔세나다 도시를 벗어나자 황토 흙 먼지가 뿌연게 오르는 비포장도로의 주위에는 빈민촌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는 판잣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오후 5시경 센터에 도착하여 만난 서 에스더 선교사님의 모습은 그곳 주민들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새까맣게 탄 얼굴에 긴 머리를 짚곤 묶은 모습은 한국말을 하는 것 외에는 그곳 여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교실에 평상을 놓아 잘 수 있도록 해 놓은 숙소는 잠시 머물고 가기에는 괜찮았다. 피곤하여 첫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담을 하나로 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에서 밤새도록 짓고 울어대는 개와 닭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도착한 다음 날 La BUFADORA 라는 관광지에 노방전도를 나갔다. 앞장선 현지 오스카 목사님의 “해수 크리스도 데 아마 무쵸 :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힘찬 구호를 우리는 따라 하며 주위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지를 읽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나로서는 처음 해 보는 노방전도였기에 너무도 신이 나고 기뻐했다.

선교사님 부부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시면서 맺은 열매들을 볼 수 있었다. 현지교회 3개를 개척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며 섬기시는 선교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을 그 땅에 묻었고, 선교지의 물질 후원자였던 큰아들마저 1년전 하늘나라로 보냈던 아픔을 딛고 곳곳하게 사역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다. 제1교회 주일예배와 제2교회 화요 기도 모임 예배에 우리는 함께 참석했다. 두시간의 긴 예배 중에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왕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언어도, 얼굴도, 풍습도 다른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안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틈틈이 하는 한방 의료사역 때에 환자들 옆에서 간절히 기도해주며 낫기를 구했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산꼭대기까지 덜컹거리며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가서 가정들을 방문하는 심방 사역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찌그러진 닭장 같은 좁은 공간에 뽀뽀하게 들어서서 눈물이 범벅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오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에까지 줄줄이 엮여 오르는 것 같았다.

땀과 흙먼지에 찌든 몸을 4일 만에 샤워를 위해 온천이란 곳으로 선교사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는 온천이라길래 기대를 하고 갔다. 그러나 그곳은 작은 공간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위에서 나오는 조절도 안 되는 뜨거운 물에 샤워를 잠시 하고 나왔는데도 감사가 넘쳤다.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국경선 검문을 기다리느라 약 3시간이 걸렸다. 국경선 광장 차 사이를 다니는, 두 팔이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걸지 못하는 사람, 애들을 둘씩 안고 뜨거운 차들 사이에서 구걸하는 그들을 본 학생 요안나가 1불짜리와 함께 전도지를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생각지 못한 그 모습에 어른으로서 부끄러웠다. 그때야 우리들도 지갑에 잔돈을 털기 시작했다. 잔돈이 다하고 가지고 있는 물병을 주니 숨도 안 쉬고 한 병을 다 들이키는 그들에게 마지막 생수까지 나누어 주도록 인도하셨으며, 이번에 요안나, 영혜, 영진, 이 세 학생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 국경선을 넘는 시간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5박 6일이라는 이 사역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강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신 예녹 평원과 모든 교수들께 감사드린다.



글 | 김옥남 권사 (예녹 평원 이스라엘 목장 목자, 산상기도회팀, 양로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영혜입니다. 저는 이번 ENSENADA의 INDIO 마을 단기선교 중 심방 사역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
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적으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심방 간 곳은 ANA와 VIRGINIA 맥이었습니다. VIRGINIA는 ANA의 시어머니였고, ANA는 많은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식구가 조그만 판잣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주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A는 막
내 동생과 남편을 트럭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이 같이 한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왔
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4)

또 기억에 남는 심방은 FIDELIA 가족이었습니다. FIDELIA와 남편은 젊은 부부였고 교회의 신실한 리더들이었습니다. FIDELIA는
병환 중인 어머니와 할머니를 방문할 기회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6년 동안 못 뵈었다고 했



는데 가장 큰 이유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방문할 때 필요한 물질
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기도한 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물
질을 PASTOR OSCAR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선교 다녀온 뒤 PASTOR
OSCAR로부터 FIDELIA는 어머니를 뵈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은 FIDELIA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
른 기도 제목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FIDELIA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
고 FIDELIA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소망
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받았던 것은 우리가 방문한 멕시코 현지 교회들의
예배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졌고 교
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찬양은 LIBRE 였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

의 피로 나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하고 마귀를 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멕시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앞에 나
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 기도 제목이 그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한 후,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당 \$8를 받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찬양을 하고 춤추면서까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이 은
혜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또한, 예배에서 어떤 멕시코 자매님이 아주 기쁜 모습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분이
셨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벌써 남편을 용서했다고 하였고 자매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
서함을 보고 그분이 먼저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ENSENADA 교회 교인들의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예스터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PASTOR
OSCAR가 당뇨 때문에 발을 잘라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교회가 두 달 동안 PASTOR OSCAR를 위하여 철야를 했다고 합니
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발가락 하나만 잃었다고 합니다.

또, 에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팀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심방이나 의료 치료하는 곳에서 큰 열정과 온 마음으로 기
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포장도로로 다닐 때 힘드셨을 텐데 불평도 안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
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연세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할 INTERNSHIP 자리를 얻지 못
하고 있어서 멕시코 선교를 깊이 고려해보지 않았는데 멕시코 선교를 결정한 그다음날 새벽 3시에 지원한 연구실에서 오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 인터뷰 때 선교 날짜 동안 못 나온다고 얘기했고 허락을 받아 다녀올 수 있었
습니다. 또, 선교 가기 전날, 고장 난 제
컴퓨터를 맡겼는데 먼 곳으로 보내야 해
서 돌아와서도 적어도 10일이나 더 기
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어
떻게 연구실 일을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
다. 하지만, 선교 갔다 돌아오는 차 안
에서 컴퓨터가 다 고쳐졌고 도착했으니
까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래서, 그다음 날 연구실에서 제 컴퓨터
로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저에게도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 이영혜 (EM, 1부 시온 찬양대 악기팀)

가족과 함께한 오uckland 단기선교

임마누엘장로교회를 다닌 지 2년 반이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선교입니다. 일 년에도 몇 번씩 수요일에 때 파송을 하고 또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교 광고가 나왔습니다. 선교의 처음은 결단이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바호에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한국 출장이 그때쯤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선교는 결단이야.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일정을 조절하실거야. 일정이 안 맞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라도 갈게.'라고 말하며 가족의 이름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렇게 13주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파이널 시험과 학교생활로 지쳐있음에도 토요일 새벽 13주를 빠지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와 주었고 남편도 출장이 있던 첫 주를 빼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벤지큐브의 내용을 외워야 했고 개인 간증문을 영어로 써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벤지큐브는 한 장을 외우고 다음 장을 외우면 앞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아직도 이곳저곳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팀은 3가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두 번째 주에 나바호를 갈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뭐지? 큰맘 먹고 결정한 건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 악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지만, 저희 팀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모두 순종하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주 결정된 곳이 오uckland였습니다. 가깝다는 이야기에 아이들 멀미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장시간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보는 초보 9명으로 시작된 저희 팀은 모두 23명으로 확정되었고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출장이 한주 미뤄져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김지홍 집사님께서 직장 일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 어린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선교에 참여하였고,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마친 다음 주부터, 바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함께 가는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에게 주어진 사

역이 많았습니다. 이벤지큐브도, 전도도, 간증도 또한, 찬양, 게임, SKIT까지 모두 아이들이 주도하고 어른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선교였습니다. 또한, 몽골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문화가 달라서 처음엔 당황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또한 우리가 배우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뜨거웠으며 간증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SKIT을 보며 공감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었고 우리들의 영성한 몽골 찬양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찬양해주셨습니다. 소그룹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벤지큐브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초청에 VIP들이 손을 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브라이언 황 전도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 성령 안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몽골 자매는 말씀이 끝난 후 자신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준비는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주관해 주셨으며 몇몇 아이들이 돌아가며 배탈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의 시간임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우리의 계획과 달라져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은 한 마리 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배려해주신 몽골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음식을 최고라며 맛있게 드셨던 성도님들을 보면서 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잔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VIP를 직접 찾아가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눠주시던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땐 좀 더 준비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2년 반 전 미국에 우리 가족을 감자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종종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길도 느끼게 하시고, 주와 같이 갈 가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으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첫 발걸음을 통해 또 인도하실 우리 가족의 앞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팀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매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히 11명의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며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통해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애를 느끼게 하시며, 함께 동역함이 있어 가능했다는 동역자들의 중요함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뒤에서 병풍처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교역자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글 | 서지승(북부 평원, 알비스 목장, 새가족 2부 팀장, 영아부 교사)

REDISCOVERING OUR FAITH

From June 14th to 16th, our Oakland mission team went to Oakland and collaborated with a Mongolian church to plan a fellowship event. Although it was a rather short time, this mission was a very special two days for me, as I learned a lot about another culture and people, the Mongols, and I had the wonderful chance to help spread the Gospel to nonbelievers. Also, it was very beneficial to be able to “re-learn” and go over what our faith is based upon while some other people were learning for the first time. I’ve realized my understanding of Jesus and the Good News was really enhanced and solidified.



Before the mission trip, most of the people on our team thought that Mongolian people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us, and we worried about lots of little trivial things. However, once we went and saw them in person, we realized that they are actually quite similar to us and that under one roof we were all unified as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The children and youth practiced a little skit and dance which we performed on

both days of the mission. Previously, I was nervous and not sure if the audience would understand our skit because there was no dialogue in it, but at the end of our first skit, after Joseph, one of the younger children, prayed for the other children stuck in the “sin chair” and then opened his arms into the air, showing that we should give the glory to God, the audience said, “Ohh, woahh!” I was really happy that the audience understood the message we were trying to tell. This was one of the special moments when I truly felt that we were blessed by God.

In addition, our whole team prepared a song called “Come Holy Spirit,” and while Annette, one of our team members, played a guitar accompaniment and Ben, another member, played the piano, the rest of us sang the song in both Mongolian and English. After we sang, the audience cheered and applauded, and I truly felt that our Mongolian audience really appreciated our efforts to sing in their mother tongue, Mongolian. I was even further amazed by the adults on our team, because most of their native languages are Korean, so they had to practice even more (two foreign languages) than the children who really only needed to practice the song in one foreign language. The next day, during worship time, the Mongolian praise team sang the same song, and personally, I felt this to be very thoughtful and heartfelt of them.

On the second day, we had a guest speaker, Pastor Brian, who preached a sermon about Jesus meeting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He talked about this story and also the core story of Jesus, his death on the cross, paying the price for our sins, and his resurrection. The moving way in which Pastor Brian told the sermon really touched my heart, and after when the praise team sang Come Holy Spirit, I began crying. I do not know exactly why I cried. I guess my heart was so moved that I cannot explain it in words. The title of the song is “Come Holy Spirit,” and I think the Holy Spirit was indeed present during that time.

Overall, I am very glad and fortunate that I went to this mission trip, and I believe that it was an extremely unique, blessed experience.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SALM 150:6



written by Priscilla Kim(김윤서, Youth 9th)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첫 발걸음

올해 초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사역에 한 번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겠냐?”는 권유를 들었을 때, 적잖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코딩 자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역하고 계신 분이 부담 없이 해도 된다면, 제가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망설이던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조그만 무언가라도 회생하며 순종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순종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 저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시간부터 부담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컴퓨터를 앞에 둔 아이들은 생각만큼 통제가 되지 않았고, 코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인 컴퓨터에 이것저것 안되는 것을 영어로 물어보는 아이들 앞에서 말 그대로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잘못 알고있고, 어설픈 영어로 설명을 해줄 때,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은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이 일을 한다고 했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처음엔 원래 통제가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저 6주간의 수업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고, 아이들과의 교감이 생기며,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두려운 마음은 조금씩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기에 그저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에만 전념하였더니, 자존심을 상하게 하던 아이들의 냉랭한 눈빛은 저의 도움을 원하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봄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는 약간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아이의 아빠가 “코딩 했을 때는 마음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도 들

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수업의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그러나, 보람은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SUMMER CAMP에 대한 결심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CAMP의 주제가 ‘ROBOTICS’ 라 주말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았지만, 큰 고민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었던 것은, 이번에 THEME이 부모와 함께 하는 CAMP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참여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매일 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반감이 있지 않을까 하였었습니다만, VOLUNTEER와 학생으로 참여하기로 한, 제 딸이 아빠와 함께 하는 수업을 기대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CAMP는 정말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CAMP의 목표가 BOX CAR를 만들고 코딩을 통해 제어하여 정해진 TRACK을 빠른 시간에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 가르칠 것도 많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도와주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의 교사가 있고, 두 명의 VOLUNTEER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충분히 도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매일 두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만큼 즐거워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CAMP를 마치고, 너무 바쁘고 피곤했던 나머지, 이번 CAMP를 통해 주님께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 이루신 일,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아쉬워할 때쯤, 한 아이의 엄마에게 감사의 메일이 왔고, 그 메일의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일을 시키신 주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9시간 신장 투석을 받는 아버지의 병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내는 아이에게 이번 코딩 수업이 커다란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과 “진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이처럼 도와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는 절절한 믿음의 편지는 갓난 아기와 같은 저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의 믿음을 조금 더 자라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두려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9:23)

글 | 김준용 (남부 평원 라스프링스 목장, 전도부)

Joy

After coming back from a mission trip to Mexico, it felt shockingly relieving to finally have WiFi again and check my social media for the first time in a week. But after scrolling down and spotting a photo posted by one of my friends, an irrational sense of indignation started to bubble up in me. A friend had posted a beautiful picture of herself in Cancun, Mexico. The paradise-like scenery around her and the activities that she had been doing were undeniably gorgeous, yet my frustration and tears started to quickly spill over.

I had just returned from an indigenous village in Ensenada, Mexico, where poverty levels soared through the roof, the majority of homes were filled with broken families, and any academic achievement beyond high school was considered a rarity and a blessing. I had gone to Mexico as a Spanish-Korean translator for the elders in my church who were going to this small village on a mission trip.

This is a village where elderly men and women walk over 3 hours to attend their local churches, families have an average of 5-12 children, people have little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nd the average amount of money earned for a hard day's labor is 5-8 dollars.

When my mission team and I were walking around to different homes to pray for the families and help them with things they may have potentially needed, we met a family consisting of one grandmother, a very young mother, and 8 children. Their home could barely be considered a house by American standards, as the roofs and walls were a makeshift combination of cardboard boxes, stones, metal sheets, and palm tree leaves. There were barely any rooms or bathrooms, and the ground was just a dirt floor.

Several years ago, the youngest daughter of this household was crushed by a truck and killed. A few years later, the mother's husband also died in a truck accident, leaving the large family entirely dependent on the earnings of the mother and the grandmother. In this village, these types of circumstances were common and normal among every single family. In fact, it was unusual for a family to not be somehow broken, experiencing severe poverty, and lacking basic necessities.

For these families, stopping work was not an option. They do not retire and rest until they physically give out as an elderly man or woman. In fact, when our team's physicians offered free acupuncture and therapy



to the people in this village, many people came to walk for hours for this rare opportunity to receive any sort of medical care. Every single person was suffering from problems with their joints, muscles, and tendons, regardless of age. When requested by the physician to stop doing certain actions in order to give their bodies time to heal, not a single person said that it would be easy because their work required hard labor without rest. Without work, they could not earn money. Without money, they could not feed their families.

But even in these appalling circumstances, there was one thing that stood out the most for me. It was the amount of joy that these people had. During one of the church services, I was shocked

to see every single person dancing, jumping, and shouting praises to God, thanking him for what he has done in their lives. They are able to find joy even in the smallest of blessings and are not afraid to face their circumstances head on. Each of them had so much hope and faith in God, even when their lives seemed like a never-ending desert. Even those who were recovering from their drug addiction in the local drug rehabilitation centers were shouting that they were free and liberated from their chains of suffering and sin. These individuals have so much faith, confidence, and joy in the salvation of Jesus and are probably the strongest and happiest people I had ever met. The person of Jesus is the same in every nation, yet the overflowing joy and faith in Mexico was something so rare and beautiful to see.

We are so privileged to be able to live in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Although many of us know this in theory, we often take this for granted and despair when circumstances do not work out the way we would like. This does not mean that our struggles are any less real or less significant; however, it remains true that many of us forget how lucky we are, even in the midst of struggle. God used my experience in Ensenada to truly impact my perception of a tangible and overflowing presence of God in everyday life. My eyes have been open to truly see the joys and blessings that God has deliberately placed in my life through every season, and I'm learning to come to a place of thankful and praise because I know that the beauty of God is worth far more than anything this world could throw at me.

written by Yoanna Lee (Youth, 11th)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

내 인생에 8월은 여러 차례 의미 있는 사건을 가져왔다. 2001년 첫 직장, 반복되는 일상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꺼내 놓았고 교회 봉사 건을 놓고 청년부 내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처음 이성애 눈을 떠 마음을 표현했던 교회 오빠도 거리를 두며 나를 외면했고, 나에게 기대가 컸던 부모님과 관계도 웬지 서먹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청춘이라는 꽃은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것 같았고, 영커 있는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내 안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었다.

연합 찬양제를 위해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해 8월 준비 모임이 시작됐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회개 기도가 나왔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지만, 내 안에는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과 정죄, 판단의 습관이 가득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세상 에 대한 것들로 인해 분열되고 있었으며, 헛된 것을 쫓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멀어져 있었다. 회개하는 중에 의심은 부끄러움을 가장해 질문한다.



이런 나도 찬양할 수 있나? 과연 그 나라 제자 될 수 있을까?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중보하시던 성령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의로움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진리.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것이 없는 신비로운 비밀, 주님이 택하신 내 인생길 그와 동행하지 않고는 내 길도 없음을..., 이 믿음 없이는 내 생명도 없음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듬해 8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을 증명하듯 나를 외면했던 그 교회 오빠와 결혼했다. 일주일 후 우린 같은 비전을 품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으나 광야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족한 영어 실력과 배고픈 하루하루에 비전은 허공 속 구름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만이 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를 했던 시간도 8월이었다.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망설였던 도미니카 선교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사막을 걷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해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케 하셨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를 느꼈으며, 복음을 접하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보내신다면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다.



풀무 불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없어지고 정금이 된다고 하는데 광야 같은 인생길 그분 오실 날까지 얼마나 남은 걸까? 인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가득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시시때때로 견디지 못하고 요동치는 내 안의 연약함, 크고 작은 훈련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다 가도 아주 작은 방심은 수축과 긴장을 가져오며 의심을 가져온다. 그럴 때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다시 들려주신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신 또 하나의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다시 8월이다. 임마누엘의 일부가 된 지 어느덧 4년이 넘어간다. 말씀 듣고 찬양으로 기도한다. 목장을 통해 섬김을 배

우고 일대일 양육으로 방향과 초점을 그분께 맞춘다. 이런 훈련의 결과일까? 하루하루가 왠지 설레고 기대된다. 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내어 드리기 원하기 때문인가 생각해본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 그 단련의 시간 속에 영원을 맛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나는 성장하며 또 다른 8월로 이동하고 있다.

글 | 방보경 (남부 평원 키르키즈 목장 부목자, 수요 찬양팀 & 3부 찬양팀 드럼)

주님의 인도하심

저는 결혼 후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장성한 후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저희의 믿음은 뜨겁지도 깊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려 가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동부의 작은 도시, 피츠버그에서 약 2년 동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첫째를 임신한 상태인데다, 미국이란 낯선 땅에 정착하기가 여간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니었던 터였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신자나 다름없던 저를 자매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고, 어려웠던 성경도 큐티 모임을 통해 점차 다가가기 쉬워졌습니다. 기도 생활도 어색했던 시절이지만, 매주 모였던 자매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알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생활을 하며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가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만 다녔던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대와 셀장(목자)으로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리는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할 수 있게 예비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원래 계시던 셀장님께서 다른 셀로 이동하게 되면서 셀장으로 섬길 분이 필요했고, 저희 셀(목장)원 자매들의 남편들 대부분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 직분을 받게 되었고, 섬김을 통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를 그곳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또한, 남편의 직장을 이곳 서부 산호세로 인도해 주셔서 비교적 쉽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적응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의지로 준비 없이 교회와 멀리 떨어진 플레즌튼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때를 임신한 상태에서 준비 없이 이사한 플레즌튼 생활은 쉽지 않았고, 결국 서비스를 주고 다시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며 법원까지 가게 되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하루 전날 기적같이 법무사를 허락해 주셨고 법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골치 아픈 서비스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랜 서비스 문제로 골치 아픈 시간 동안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법무사님 덕에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소한 법정 문제는 어떤 변호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와 서비스비를 저희가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큰 이득이 없는 이런 소송 문제는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법무사님도 어찌 보면 저희의 도움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던 상황임에도, 그것도 법정 당일 하루 전날 큰 도움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FREE PARKING	주차요금	음식물 쓰레기	금연	금연	금연	GO TO
목장	목장	기도	기도	기도	기도	목장
생물	생물	생물	생물	생물	생물	생물
큐티	큐티	큐티	큐티	큐티	큐티	큐티
공통체	공통체	공통체	공통체	공통체	공통체	공통체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결혼	결혼	결혼	결혼	결혼	결혼	결혼
GO	GO	GO	GO	GO	GO	GO

위해 일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증 제목처럼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혼 초 심방 때 받았던 설교 본문이 시편 23:1~2 말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 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셨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며 고백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실지, 부족한 저희를 무엇으로 채워 주실지 항상 기도합니다.

글 | 박영진 (산호세 평원 요르단 목장, 유치부 PTA)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비쉬켄(Bishkek)목장

살롬~~ 저희 비쉬켄 목장은 현재 여섯 가정이 모여며, 9명의 자녀 중, 어린이 목장에 참석하는 자녀들은 7명입니다. 맛 있는 식사가 끝나면 자녀들과 모두 둘러앉아 찬양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아는 곡을 부르게 될 때는 서로 목청 높여 부르고, 반복하자고도 하고, 찬양을 아쉽게 끝나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과 기도 제목을 물으면 아이들이 놀랍게도 기특한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장모임에 올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 자연재해를 없게 해달라는 기도, 학교생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가 흔들리는데 잘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기도,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Pastor Sarah wedding을 위한 기도 등등... 다 듣고 난 뒤 부모들은 모든 자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나눔이 끝나면 자녀들은 장소를 옮겨, 어린이 목자의 인도로 말씀 나눔과 크래프트를 합니다. 저희 목장은 하나님 은혜로 어린이 목자가 2명인데, 올리브 블레싱 섬김 팀에서 귀하게 준비해주신 자료들로 한주씩 돌아가며 준비하고, 또 크래프트를 할 때는 큰 자녀들이 어린 동생들것을 함께 도와주며 완성을 하는데, 큰자녀들의 나이는 7살~ 9살, 어린 동생들의 나이는 3살~ 5살입니다. 초반에는 어른이 한 번씩 돌아가며 같이 있다가 나았는데 최근 몇 개월은 어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나눔이 본격적으로 나뉘지는 시간에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되새기며 각자 은혜 받은 것과 삶을 나누며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누구에게 위로, 누구에게 도전, 누구에게 리마인드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구하고, 아픈 지체의 완치를 구하며, 지체의 부모형제들의 영혼 구원과, VIP들의 영혼 구원을 구하는 중보의 시간에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비쉬켄목장에서 후원하는 김정진, 서지현, 하나 선교사님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선교 담당이신 강명신 자매님이 이메일로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선교헌금이 선교지에 잘 보내지도록 섬기고 있으며, 권우경 자매님은 자율사역기간 중에 친교를 담당하여 피크닉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참여도 100%의 즐겁고 사랑이 풍성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술을 전공자하신 박민경 자매님은 이번 VBS때 유치부 메인 예배실을 창의적이고 정교하게 꾸미는 섬김을 보이셨고, 최병민 형제님은 음식 솜씨가 웬만한 주부 10단보다 뛰어나지만, 오픈한 다른 가정에 가서는 늘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임병진 형제님은 기타를 치며 찬양을 담당하시고, 강명신 자매님은 수줍음이 많아 늘 새색시 같은 이미지이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강창범 목자님은 식구들이 서로 삶을 나눌 때 경청하다가 혹 타이밍을 놓쳐 말을 못한 식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명석을 깔아주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눔의 시간을 할애하는 센스쟁이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겸손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를 비쉬켄목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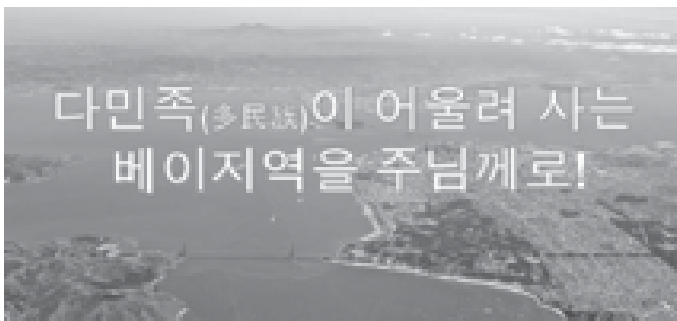
글 | 김현미 (동부 평원 비쉬켄 목장 부목자)

땅끝이 우리 주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이 백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은 엄밀히 말하면 이민자들이 그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와서 세운 개척자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개척자들의 정신이 여전히 이 땅의 정서와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 스며들어 있기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이 기회의 땅으로 번영의 꿈을 꾸며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베이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부 산호세 지역의 베트남타운, 프리몬트 지역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인도 커뮤니티, 그리고 최근에는 씨니베이일에 이만 명 가까이 늘어난 네팔 커뮤니티 등 정말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수많은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는 황금어장이 나 다름없습니다.

임마누엘 국내선교부는, 초창기 활동하시던 믿음의 선배분들의 표현을 빌자면, 베이지역에 형성된 황금어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생겨났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위에 모여든 많은 민족들이 그것도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영어 문화권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다민족 이웃이야말로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땅끝의 사람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바로 지금 더욱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교회 섬김팀은 주변에 어려움에 부딪힌 한인 개척교회를 찾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소수 민족 중 하나이며,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 특히 한인 개척교회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상처도 많습니다. 각 교회를 찾아가서 담임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팀은 수년 전부터 어린이 전도협회 (CEF: Children Evangelism Fellowship)의 훈련과 교재를 바탕으로 소수민족 어린이가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모아 매주 성경공부와 게임과 찬양, 등 말씀 등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적 사상과 종교적 관념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선교팀 내의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어린이 전도는 확실하게 된다’라는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우리 교회의 Youth (중고등부)에 연결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 된 그분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길을 만들



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매 주일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문을 두드려 깨워야만 느지막이 나서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준비해서 픽업 봉사자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어른 선교팀의 활동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일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소수민족 교회와 단체와의 협력도 도모합니다. 캄보디아 교회 청 목사님과 쏘카 사모님을 지난 4월, 소수민족 교회 사역자 부부 초청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초창기 겪었던 어려움을 이 베이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들이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그분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IT 선교부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는 코딩캠프를 열기도 했고, 캄보디아 할머니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주어지는 아름답고 진실한 열매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장 후원팀은 각 선교 활동들이 목장 공동체와 연계되고 실제화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목장이 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구체화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선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되어 각 목장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일하게 되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선교가 더 이상 머나먼 곳에서 어느 특정한 헌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심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머나먼 곳이든지 가까운 이웃이든지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국내선교부가 그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글 | 조상전 (동부 평원, 국내선교부장)

카페 “웰”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카페 “웰(Well)”의 봉사자 안은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안에, 저희 카페가 시작된 지 이제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늘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님들과 애용해 주시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합니다.

카페 “웰”의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교회에 와서 행

복한 기억, 비록 가치로 따질 때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아무런 댓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뿐만 아닌, 어른들에게는 무엇이 교제의 기쁨을 더할 수 있을까? 미약하게나마 시작한 아이스크림 봉사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커피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분 한분의 봉사자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디자인도, 아이디어도, 사랑도 넘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오가고 아이디어가 추려질 때에도 모두 하나님께서 화합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 봉사’, 이것이 카페 “웰”의 기본입니다.

저희 카페는 100%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운영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하신 주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싸인업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설프고 금방이라도 구멍이 날 것 같은 위태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매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컵도 제대로 없고, 아이스크림은 생각도 못 했으며, 라떼나 다른 이른바 이름있는 커피 종류는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교제할 때에나, VIP를 섬기실 때나, 섬이 필요한 때에 ‘멀리 차 타고 나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온전한 마음을 받으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설프은 모양의 커피를 받아가셔도 얼굴에 이해와 사랑이 묻어났고, 그러기에 봉사자님들도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섬기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 되는 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다 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휘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직책도 의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봉사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며, 또한 모든 일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

니다. 꼭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좋은 카페라는 명예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섬길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섬길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더욱 기도하며 의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 내가 한 것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커피의 맛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노력도, 어설퍼도, 한 잔 한 잔에 사랑과 웃음을 담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안은선 (산호세 평원 평안 목장 부목자, 중교등부 교사)



리를 포레스트 (2018)

영화 '리를 포레스트'는 심신이 지친 주인공 해원이 고향에 내려와 제철 요리들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의 회복을 얻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해원의 고향은 어머니가 병든 아버지를 요양하며 살던 곳이며 그녀가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딸이 대학입시를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긴 여행을 떠난다. 어머니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로 딸에게 설명한다. 결혼으로 그만두어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을 타이밍이 되었다며 떠난 것이다. 그래서 해원은 홀로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했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험 준비를 하는 서울에서의 삶은 매우 고달팠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하고 공부했지만, 임용고시에 떨어지자 더 이상은 건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향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온다. 집은 떠날때 처럼 덩그러니 비어 있다. 냉기가 흐르는 집에 온기를 돌우고 집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워 길을 뚫는다. 굴뚝에 김이 오르자 근처에 사는 큰고모와 옛 친구들이 인기척을 깨닫고 찾아온다. 실패를 안고 돌아온 터라 자신이 돌아온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고향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다. 뜨거운 수제비를 끓여 먹으며 몸을 녹이고, 치자와 시금치로 색을 낸 팔시루떡을 찐다. 혹은 힘든 노동을 끝내고 시큼한 맛의 막걸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어 마시기도 한다. 모두 어릴 적 엄마가 만들던 음식들이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해원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며 조금 더 머물기로 한다. 해원은 고모를 도와서 감자를 심고 씨 뿌리는 일들을 도우며 봄을 맞이한다.



시골의 봄은 너그럽다. 아직 차가운 땅이지만 씨 뿌리는 노동 없이도 거둘 수 있는 봄나물들을 내어 주고, 아카시아 꽃과 썩갠 향긋한 간식거리가 된다.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보낸다 해도 해원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다. 쉼 새 없이 속아내야 하는 잡초처럼 걱정은 끊이지 않고 고개를 들지만 해원은 그저 더위와 싸울 뿐이다. 무더위 속에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썩 옥수수과 시원한 콩국수를 먹으며 몸과 마음을 식힌다. 밤에는 냇물 속을 휘젓는다. 반갑기만 했던 고향 친구와 빼앗겨릴 땐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달콤한 크렘브뤼레(*편집자 주: Crème brûlée는 커스터드에 얇은 캐러멜 층을 덮어 만든 프랑스 후식)를 만들어 선물한다. 과연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과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달콤함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자 들판은 황홀한 색으로 가득 차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러나 농부들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를 즈음 폭풍이 들이닥쳤다. 그렇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수확이다. 농부들은 주저앉아 울 틈도 없이 다시 벼를 일으며 세우고 나뭇가지에 남은 열매들을 붙들어 맨다. 폭풍이 지나간 가을 속에서 해원도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듯했다. 그녀는 한걸 차분해진 마음으로 숲에서 밤을 주워 밤조림을 만들고 단감을 매달아 꺾임도 마련한다. 수확한 것들을 모두 먹어 치우지 않고 저장해 두고 겨울을 기다린다. 잘 기다려야, 때가 되어서야 진짜 맛있는 꺾임이 된다고 강조하던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기다린다.

그렇게 고향에서 사계절을 지내며 해원은 엄마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엄마의 삶은 자연과 요리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작은 숲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도 자신만의 숲을 찾아 완성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제 추운 겨울을 막 건넌 해원은 자신이 뿌리내릴 곳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 서울로 떠난다. 그리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해원의 고향에서 사계절은 우리 인생을 짧게나마 대변하는 것 같다. 우리의 꿈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싹을 틔웠을까? 비옥한 땅에 잘 자리 잡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폭풍이 왔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겨울을 만나 잔뜩 움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가을에 싹을 틔워 추운 겨울을 버텨낸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더 단단하고 훨씬 달디는 영화 속 설명은 비단 해원에게만 해당하는 비유는 아닐 것이다. 어릴 때 꿈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낸 인생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남들이 추수하는 가을에야 싹을 틔워 힘든 겨울까지 건넌 꿈은 더 단단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에도 오히려 나무에 더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길 다짐한다. 인생의 겨울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글 | 한연선 (산호세 평원 쿠팡 목장 부목자, 유치부 교사, 편집부)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김정신
진행	김연희 한연선 김정신
사진	김홍배 윤영숙 김범진 박종현
	김홍대 여환승 김기훈
교정 및 번역	성경하 이진경 황인주
편집 디자인	김유경 한 혁 정용익 국세은 윤주영
표지 그림	윤주영

표지 이야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주셔야 얻어집니다.
무력무력 자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